

조선시대 도자 변천에 관한 고찰 (朝鮮時代 陶磁 變遷에 관한 考察)

馬山教育大學教授 朴東百

序 言

1. 조선 窯業의 發達

- 1) 初期의 窯業
- 2) 中期의 窯業
- 3) 後期의 窯業
- 4) 廣州의 窯址

2. 조선 陶磁器의 種類

1) 粉靑 沙器

3) 辰砂

5) 靑華

7) 祭器 硯滴

3. 조선 陶磁器의 特徵

2) 白磁

4) 鐵砂

6) 黑釉

서 언(序 言)

우리나라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부터 토기(土器)를 만들어 사용(使用)하였다. 통일신라(統一新羅)에서 고려초(高麗初)까지는 토기(土器)가 사용(使用)되다가 고려(高麗)때 와서 자기(磁器)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그 제작기술(製作技術)은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世界)에서 일컫는 이른바 비색(翡色)의 고려청자(高麗靑磁) 상감청자(象嵌靑磁)等を 만들어 놓기에 이르렀다.

고려말(高麗末)에 와서 청자(靑磁) 및 상감청자(象嵌靑磁)가 쇠퇴(衰退)하면서 흑화자기(黑花磁器) 고려백자(高麗白磁) 흑유(黑釉) 등(等)이 만들어졌으나 조선초(初)에 와서는 상감수법(象嵌手法)의 여맥(餘脈)을 분청(粉靑)에 남겨둔 채 고려자기(高麗磁器)의 시대(時代)는 사라지고 조선초(初)의 분청시대(粉靑時代)가 나타난다. 조선시대(時代)의 자기(磁器)는 초기(初期) 중기(中期) 후기(後期)로 나누어 그 시대적(時代的)인 특징(特徵)이 각각(各各) 나타나는 것은 흥미(興味)있는 일이다. 고려자기(高麗磁器)가 세계적(世界的) 작품(作品)이고 보니 조선자기(磁器)를 고려자기(高麗磁器)의 퇴보(退步)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또 고려자기(高麗磁器)가 귀족적(貴族的) 종교적(宗教的) 것인데, 반(反)하여 조선자기(磁器)는 서민적(庶民的) 실용적(實用的)인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果然) 조선자기(磁器)가 고려기(高麗器)의 퇴보(退步)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조선시대(時代)에 분청(粉靑) 백자(白磁) 청화(靑華)가 나타나야 할 필연적(必然的) 여건(與件)에서였는지 또한 고려자기(高麗磁器)보다 열등품(劣等品)으로 인정(認定)받아야 하는지 평소 다소(多少) 도자기(陶磁器)를 수집(蒐集)하고 도요지(陶窯址)를 답사(踏查)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의문점(疑問點)을 중심(中心)으로 극히 일부분(一部分)이나마 조선 도자(陶磁)의 특징(特徵)을 고구(攷究)하여 보고자 한다. 연구범위(研究範圍)를 넓힐

수 없어 본고(本稿)에서는 다만 조선 요업(窯業)의 발달과정(發達過程)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變化)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 또 조선기(器)의 종류(種類)와 특징(特徵)을 중심(中心)으로 조사(調查)하고 문헌상(文獻上)에 나타나는 도요지(陶窯址)를 답사(踏查)하고 수집(蒐集)한 파편(破片)을 자료(資料)로 하여 본고(本稿)를 초(草)한다.

본고(本稿)를 작성(作成)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點)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도공(陶工)들이 천시(賤視)되었고 무지(無知)한 그들은 문헌(文獻)을 통(通)하여 그 제작기술(製作技術)을 후대(後代)에 전달(傳達)할 수가 없었으며 오직 그 기술(技術)을 대(代)를 이어 전승(傳承)시켜 왔을 뿐이었으므로 제작기술(製作技術)에 관(關)한 문헌(文獻)이 거의 없고 옛 도공(陶工)들의 기술(技術)을 그대로 전승(傳承)한 사람도 없는 오늘에 있어서는 그 여맥(餘脈)을 찾을 길조차 없다는 데 있다.

또한 필자(筆者)의 사정(事情)으로 문헌고구(文獻攷究)도 충실(充實)히 하지 못하였으며, 요지조사(窯址調查)도 두루 못하였고 유물(遺物)의 수집분류(蒐集分類)도 제대로 그 단계(段階)에 이르지 않아 체계적(體系的)인 논문(論文)을 이루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조사연구(調查研究) 할 것을 기약(期約)하고 대방(大方)의 질정(叱正)을 바라지 않는다.

1. 조선요업(窯業)의 발달(發達)

조선 오백년간(五百年間)의 요업발달사(窯業發達史)에서 그 특징(特徵)을 논(論)함에 있어 편의상(便宜上) 다음과 같은 시대구분(時代區分)에 따라 정리(整理)해 보고자 한다.

초기(初期) : 태조(太祖)(1932)~연산군(燕山君)(1505)에 이르는 약(約) 113년간(年間)으로서 분청사기(粉靑沙器)의 전성시대(全盛時代)로 계룡산(鷄龍山) 고령(高靈) 상주(尙州) 진주(晉州) 등(等)이 그 대표적(代表的) 산지(產地)였으며 광주(廣州)에서는 백자(白磁)가 나오고 청화(靑華) 진사(辰砂) 등(等)도 제작(製作)되기 시작(始作)하였다.

중기(中期) : 중종(中宗)(1506)~효종(孝宗)(1659)에 이르는 153여년간(餘年間)으로서 분청사기(粉靑沙器)가 쇠미(衰微)하고 백자(白磁)의 전성시대(全盛時代)를 이루며, 청화(靑華) 진사(辰砂) 철사(鐵砂)도 제작(製作)되었다.

후기(後期) : 현종(顯宗)(1660)~고종(高宗)(1883)에 이르는 223여년간(餘年間)으로서 요업(窯業)의 중심(中心)은 광주(廣州)였으며 후기초(後期初)에는 우수(優秀)한 작품(作品)이 만들어졌으나 후기말(後期末)에는 사회적(社會的) 불안(不安)으로 작품(作風)이 현저(顯著)하게 타락(墮落) 쇠퇴(衰頹)하였다.

1) 초기(初期)의 요업(窯業)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사옹원(司饗院)은 공어(供御)의 선(膳) 및 궐내(闕內)의 공궤(供饋)의 일을 맡는다.”¹⁾라고 하였다. 이 사옹원(司饗院)에 번조관(燔造官)을 두었는데 이 번조관(燔造官)은 하급관리(下級官吏)로서 매년(每年) 제도(諸道)에 파견(派遣)되어 번조상황(燔造狀況)을 감찰(監察)하고 도자기(陶磁器)가 완성(完成)되면 서울로 운반(運搬)하는 일을 맡는다. 이는 지방관요(地方官窯)를 감찰(監察)하고 또 지방관요(地方官窯)로부터 공부품(貢賦品)으로서 도자기(陶磁器)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主)로 포사(布絲) 염(鹽) 지(紙) 이외(以外)에도 여러 가지 그 지방(地方)의 특산물(特産物)을 받

1)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司饗院條 「掌供御膳及闕內供饋寺事」

아들이는데 도자기(陶磁器)도 공부품(貢賦品)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공부품(貢賦品)을 받아들이는 관서(官署)를 장흥고(長興庫)라고 한다. 장흥고(長興庫)는 공부품(貢賦品)을 지방(地方)에 분산(分散)시켜 모아 두었다가 운반(運搬)하는 때도 있고 직접(直接) 서울로 운반(運搬)하는 경우도 있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戶曹上器除弊事宜啓曰 據長興庫 呈外貢砂木器以司饗房納施行 而庫專掌捧納 內宴及行事時(호조상기제폐사의계왈 거장흥고 정의공사목기이사용방납시행 이고전장봉납 내연급행사시)

分納於司饗院司膳署司饗所 故未得終始考察 或匿或破運納之數 僅至五分之一 徵於逢受下典實

(분납어사용원사선서사련소 고미득중시고찰 흑닉흑파운납지수 근지오분지일 징어봉수하전실)

爲積年巨弊願自今庫納砂木器 外貢元數內 司饗房司膳署禮賓典祀內資內膳寺 恭安敝承府等 各

(위적년거폐원자금고납사목기 외공원수내 사용방사선서예빈전사내자내섬사 공안창승부 등 각)

司分定上納各其司 考察出納 只革積弊 戶曹又啓 長興庫府砂木器 今後 刻長興庫三字 其他各

(사분정상납각기사 고찰출납 지혁적폐 호조우계 장흥고부사목기 금후 각장흥고삼자 기타 각)

司所納亦依貢案長興庫例 各刻司號造作上納 上項有標器皿 私藏現露者 以盜官物 坐罪 以絶巨

(사소납역의공안장흥고례 각각사호조작상납 상항유표기명 사장현로자 이도관물 좌죄 이 절거)

弊者 從之(폐자 중지)」²⁾ 라는 기록으로 보아 장흥고(長興庫)로부터 공납(貢納)하는 도자기(陶磁器)나 목기(木器)는 사용원(司饗院)에서 거두어 두는데 관내(官內)에 행사(行事)가 있을 때 사용방(司饗房)으로부터 사선소(司膳所)나 사선소(司膳所)가 갖고 가서 쓰고 이를 다시 환부(還付)할 적에는 사취(私取)하는 자(者)와 파손(破損)되는 것이 있어 제작시(製作時)에 사호(司號)를 새기게 하면 운반시(運搬時)에 사취(私取)의 예방(豫防)이 되기에 이 진언(進言)은 허용(許容)이 되었고 이후(以後)로 사호(司號)가 새겨진 그릇이 많이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사호(司號)가 보이는 그릇은 대부분(大部分) 분청(粉靑)이 많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方法)이 성공(成功)하여 도자제조(陶磁製造) 기술(技術)은 향상(向上)되었으며 진보(進步)가 있었다. 또 공조(工曹)에서 진언(進言)하기를 「工曹啓凡進上器 皿不用心堅緻造作 緣此不又破毀今後於器皿底書造作匠名 以憑後考其不用心者 徵其器皿 役之」(공조계범진상기 명불용심견치조작 녹차불우파훼금후어기명저서조작장명 이빙후고기불용심자 징기기명 역지)³⁾ 라고 하여 상납(上納)하는 기명(器皿)의 제조(製造)에 있어 성의가 없는 고로 취해진 조치(措置)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상계(上啓)는 결국 잘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금까지 조사(調查)된 기명(器皿)에서는 장인(匠人)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 검출(檢出)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 이유(理由)는 천민공노등(賤民工奴等) 도공(陶工)의 이름이 왕족(王族) 귀족

2) 太宗實錄 17年 4月 20日 丙子條

3) 世宗實錄 3年 5月 10日 辛丑條

등(貴族等)의 탁상(卓上)에 올려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번조소(자기지부)(燔造所(磁器之部))

도명(道名)	총수(總數)	상품(上品)	중품(中品)	하품(下品)	불명(不明)
경기(京畿)	14	1	0	13	
충청(忠淸)	23	0	12	11	
경상(慶尙)	36	3	8	25	
진라(全羅)	31	0	15	12	4
황해(黃海)	12	0	6	6	
강원(江原)	4	0	2	2	
평안(平安)	12	0	1	11	
함경(咸鏡)	4	0	0	1	3
합계(合計)	136	4	44	81	7

조선 초기(初期)에 어느 정도의 번조소(燔造所)가 있었는가에 대(對)하여는 세종실록부록지리지(世宗實錄附錄地理志)(세종14년 조사(世宗14年 調査))에 상세(詳細)하게 기록(記錄)되어 있다.

번조소(도자기부)(燔造所(陶磁器部))

도별(道別)	총수(總數)	상품(上品)	중품(中品)	하품(下品)	불명(不明)
경기(京畿)	20	0	6	12	2
충청(忠淸)	38	0	6	30	2
경상(慶尙)	34	0	6	28	0
진라(全羅)	39	0	8	23	8
황해(黃海)	17	0	6	11	0
강원(江原)	10	0	0	10	0
평안(平安)	12	0	1	10	1
함경(咸鏡)	15	0	0	6	9
합계(合計)	185	0	33	130	22

위의 통계수(統計數)는 태조(太祖) 개국후(開國後) 40년의 조사(調査)로서 이 당시(當時)에 321개소(個所)의 요지(窯址)가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이에 의(依)하여 볼 때 전국(全國)을 통(通)하여 북방(北方)보다는 남방(南方)에 많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육년조(六年條)에 「평안도(平安道)에는 자기소(磁器所)가 없기 때문에 기명(器皿)이 없다. 이곳은 중국사신(中國使臣)이 왕래(往來)하는 요충(要衝)으로 항상 그들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명(器皿)이 없으니 어려운 점이 많다. 고로 자기장(磁器匠)을 파송(派送)하여 줄 것을 바란다.」⁴⁾고 평안도(平安道)에서 품신(稟申)하였다. 그리하여 공조(工曹)에서는 충청도(忠淸道)에서 자기장(磁器匠) 2명(名)을 뽑아 파송(派送)하였다. 이것은 세종(世宗) 6년의 일로 번조소표(燔造所表)의 조사(調査)는 동왕(同王) 14년의 것이므로 기술자(技術者) 파견(派遣)에 의(依)하여 자기소(磁器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초기(初期) 백자(白磁)란 명칭에 대한 기록(記錄)으로서 용제총화(慵齊叢話)에는 「世宗朝 御器 專用白磁 至世祖朝 雜用彩磁(세종조 어기 전용백자 지세조조 잡용채자)」⁵⁾라

4) 世宗實錄 六年 「工曹據平安道監司關啓 道內本無磁器匠 中國使臣來往多 應器皿甚爲不潔 乞以忠淸道 各官才 熟磁器匠二名 送于本道 依習燔造 從之」

5) 慵齊叢話 第十卷

고 쓰여 있다. 세종조(世宗朝)의 어기(御器)는 모두 백자(白磁)를 사용(使用)하였으나 세조조(世祖朝)에 이르러서는 채기(彩器)도 혼용(混用)하였다는 것이다. 용제총화(慵齊叢話)의 저자(著者)인 성현(成俔)은 세종(世宗) 21년(1439)에 나서 세조(世祖) 5년(1459)에 21세로 진사(進士)에 급제(及第)하고 연산군(燕山君) 10년에 66세로 졸(卒)하였다. 그는 당대(當代)의 대유학자(大儒學者)로 견문(見聞)과 식견(識見)이 넓어 그의 기록(記錄)은 신빙성(信憑性)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당시(當時)는 백태토(白胎土)의 발굴(發掘)이 적어서 대량생산(大量生産)이 불가능(不可能)하였기에 백자(白磁)는 귀중품(貴重品)임에 틀림이 없었다. 또 이때는 건국후(建國後) 60여년(餘年)을 경과(經過)하였으니 백자(白磁)의 제조기술면(製造技術面)에 있어서도 향상(向上)되었을 것이며, 용제총화(慵齊叢話)에서 말하고 있듯이 왕궁어기(王宮御器)로 사용(使用)되었으니 그 제조(製造)에 정성과 기술(技術)을 다하였을 것이다. 그 때의 어기제조소(御器製造所)는 광주(廣州)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청화백자(靑華白磁)가 들어 온 것은 세종(世宗) 10년 명(明)에서 보내온 것으로 「上率王 世子及百官 迎勅于慕華樓 至景福宮 行禮如儀 勅曰 今賜王白素磁器 十卓 白磁靑華 大盤五個 小盤五個 可領也(상을왕 세자급백관 영칙우모화루 지경복궁 행례여의 칙알 금사왕백소자기 십탁 백자청화 대반오개 소반오개 가령야)」⁶⁾라고 한 것에 의(依)하여 알 수 있다. 중국(中國)과 우리나라 사이의 관역(官易)은 조선에서 중국(中國)에 우마(牛馬) 및 기타공물(其他貢物)을 헌상(獻上)하면 중국측(中國側)에서는 약제(藥劑) 및 도자기(陶磁器)를 보내어 주었다. 세종(世宗) 10년에 중국(中國)에서 보내온 백자(白磁)는 이것을 어기(御器)로 사용(使用)하였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조선에서 청화백자(靑華白磁)를 만들기 시작(始作)한 것은 세조(世祖)때로 추정(推定)할 수 있다. 세조(世祖)는 건국후(建國後) 64년에 즉위(卽位)하였고, 즉위(卽位) 다음해인 2년 병자(丙子)에 공조(工曹)에서 궁중(宮中)의 주방(酒房)에서 사용(使用)하는 금잔(金盞)을 제조(製造)코자 상계(上啓)하였더니 세조(世祖)는 이를 반대(反對)하고 「화자(畫磁)로써 금잔(金盞)에 대(代)하도록 명(命)하였다」⁷⁾고 하였다. 물론(勿論) 이것은 세조(世祖)의 선정(善政)의 일례(一例)로 볼 수 있다. 이에서 화자기(畫磁器)라고 한 것은 청화(靑華)를 가리킨 말이다. 그리고 금(金)으로 만든 잔대신(盞代身)에 청화(靑華)를 사용(使用)토록 한 것은 그만큼 청화(靑華)가 당시(當時)에 있어서 귀중품(貴重品)이었음을 입증(立證)하여 준다. 또한 세조(世祖) 2년에 청화(靑華)를 궁중주방(宮中酒房)에서 사용(使用)토록 명(命)한 것으로 보아 그 제작년대(製作年代)는 이보다 2~3년을 거슬러 올라가 세종대(世宗代)에 이미 청화(靑華)가 만들어졌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청화(靑華)의 원료(原料)로 당시사용(當時使用)된 것은 회회청(回回靑)으로서 이는 자연(自然)코발트 화합물(化合物)을 함유(含有)한 광물(鑛物)로 흑색(黑色)인데 이에 열(熱)처리를 가(加)하면 청록(靑綠)이 되는 것이다. 이의 산지(產地)는 회교국(回教國)인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인(人)들이 해륙(海陸)을 통(通)하여 멀리 중국(中國)에 전달(傳達)하여 온 것이다. 중국(中國)에서는 회교도국(回教徒國)에서 온 물건(物件)이므로 이를 회회청(回回靑) 또는 회청(回靑)이라고 하였다.

이 회청(回靑)은 중국(中國)에 있어서도 귀중품(貴重品)이었으나 뒤에 중국운남지방(中國雲南地方)에서도 산출(產出)되어 이를 토청(土靑)이라고 하였으며, 회청(回靑)보다

6) 世宗實錄 卷第四十一 世宗十年 7月 19日 己巳條

7) 李肯翊의 然黎室記述 二年 丙子 「請造中宮酒房金盞 命以畫磁器代之」

는 그 질(質)이 하품(下品)이었으나 세조(世祖) 6년에 대소인원(관원)(大小人員(官員))의 주기(酒器) 이외(以外)는 금은청화백자(金銀靑華白磁)를 금(禁)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當時)에 청화(靑華) 백자(白磁)를 제조(製造)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否認) 못할 사실(事實)이며 원료(原料)는 물론(勿論) 중국(中國)에서 구(求)한 것이라 본다. 또 회청(回靑)은 당시(當時) 사정(事定)으로서는 몹시 귀(貴)한 것으로서 중국(中國)에서 구(求)하는 길밖에 없어 조정(朝廷)에서 의논(議論)하기를

「求回回靑於中國 畫樽壘壘觴 與中國無異然回靑□貴 求中國亦未多得 朝廷議曰 中國雖窮村

第店 咸用畫器 豈皆回靑所畫 應有他物可畫者 訪於中國則皆曰 此土靑也 然所謂上靑者亦未

求得 由是 我國畫磁 器甚少(구회회청어중국 화준루루상 여중국무이연회청□귀 구중국 역미다득 조정의왈 중국수궁촌 제점 함용화기 기개회청소화 응유타물가화자 방어중국칙 개왈 차토청야 연소위상청자역미 구득 유시 아국화자 기심소」8)9)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청화백자(靑華白磁)를 만들 수 있는 유일(唯一)한 여건(與件)은 회청(回靑)을 수입(輸入)하여 오는 것인데 회청(回靑)은 중국(中國)에서도 구(求)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초기(初期)에는 청화백자(靑華白磁)를 만든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 희귀(稀貴)한 자료(資料)를 국내(國內)에서 구(求)해 보려고 노력(努力)한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세조(世祖)때에는 회청(回靑)을 얻기 위하여 전국(全國)에 조사원(調査員)을 파견하여 그 지방(地方) 토산물(土産物)을 채집(採集)하도록 한 것 같다. 세조실록(世祖實錄)에 보면 「전라도경차관구치□ 득회회청어강진 이진(全羅道敬差官丘致□ 得回回靑於康津 以進)」10)이라 하여 구치□(丘致□)가 강진(康津)에서 회회청(回回靑)을 얻어서 바쳤으며 또 「全羅道 敬差官丘 致□ 採順天府回回靑 相似石 畫砂器燔造拜採康津縣靑鐵 以進」(전라도 경차관구치□ 채순천부회회청상사석 화사기번조배채강진현청철 이진)11)이라 하였으니 순천부(順天府)에서 회회청(回回靑)과 비슷한 돌을 채취(採取)하여 사기에 그림을 그려서 구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慶尙道敬差官 柳綏 來復命 仍進諸邑物産……密陽府回回靑相似石……義城縣回回靑相似石……等物」(경상도경차관 유완 내복명 잉진제읍물산……밀양부회회청상사석……의 성현회회청상사석……등물)12)이라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아 중국(中國)에서 수입(輸入)하는 회회청(回回靑)에 대신(代身)할만한 안료(顔料)를 찾기 위하여 노력(努力)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왕(王)의 뜻을 받들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보낸 글을 보면 「(承政院奉旨馳書于全羅道觀察使曰 康津縣所産回回靑 曾已採取試驗 問有眞實者 卿可下訪問 公私沙器燔造時 須用回回靑 疑似沙土試驗 以啓 上品人得此彩色以進者 或賞職超資叙用 或賞布五十疋 廣諭本道居民 拜諭諸道(승정원봉지치서우전 라도관찰사왈 강진현소산회회청 증이채취시험 문유진실자 경가하방문 공사사기번조시 수용회회청 의사사토시험 이계 상품인득차채색이진자 흑상직초자서용 흑상포오십필 광 유분도거민 배유제도)」13)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예종(睿宗) 1년부터 토청(土靑)을 구(求)

8) 經國大典 形典 禁制

9) 慵齋叢話 第十卷

10) 世祖實錄 卷第 30 世祖 9年 5月 24日 壬子條

11) 世祖實錄 卷第 34 世祖 10年 8月 7日 戊子條

12) 世祖實錄 卷第 31 世祖 9年 閏 7月 3日 庚申條

13) 睿宗實錄 卷第8 睿宗 1年 10月 5日 乙卯條

하기는 하였으나 그 질(質)이 좋지 않아 그 후(後)에 만들어진 많은 청화(靑華)는 모두 중국(中國)으로부터 수입(輸入)한 회청(回靑)을 사용(使用)한 것으로 보여진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以後)에 중국(中國)과 무역(貿易)이 두절(杜絕)되매 회청수입(回靑輸入)이 없어 용준(龍樽)의 제조(製造)가 불가능(不可能)하였다는 사실(事實)을 볼 때 모든 청화(靑華)는 중국(中國)에 의존(依存)한 것 같다. 현재(現在)까지 발견(發見)된 초기(初期)의 청화(靑華) 백자(白磁) 파편중(破片中)에서는 토청(土靑)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없다.

아무튼 세종(世宗)때 어기(御器)는 백자(白磁)를 사용(使用)하고 세조(世祖)때에 이르러 채도(彩陶)를 혼용(混用)하였다. 그리고 회회청(回回靑)은 중국(中國)에서 구(求)하여 준병배(樽瓶盃) 등에 화(畵)를 그린 것이 중국(中國)과 다를 바 없었다. 여기에서 「人之所用 陶磁最緊 今麻浦露梁等處 皆以陶埴爲業 此皆瓦器缸瓮之類 至如磁器 須用白土 精緻燔造 然後可中於用 外方各道 多有造之者 惟高靈所造最精 然不若廣州之尤爲精也 每歲 遣司饗院官 分左右邊 各率畫吏 從春至秋 監造而輸納于御府 錄其功勞 而等第之優者 賜物」(인지소용 도자취긴 금마포로양등처 개이도식위업 차개와기항옹지류 지여자기 수용백토 정치 번조 연후가중어용 외방각도 다유조지자 유고령소조취정 연불약광주지우위정야 매세 건사용원관 분좌우변 각을화이 중춘지추 감조이수납우어부 녹기공로 이등제지우자사물)¹⁴⁾이라고 한 것을 보면 고령(高靈) 광주등지(廣州等地)에서 정밀한 도자기(陶磁器)를 만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청화(靑華)의 발달도 이러한 적극적(積極的)인 국가장려(國歌獎勵)에 의(依)하여 발전(發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今麻浦露梁」 운운(云云)한 것의 그 연대(年代)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세조이후(世祖以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세조(世祖)가 요업발전(窯業發展)에 지대한 관심(關心)을 가진 왕(王)으로서 그 이후(以後)부터 요업(窯業)이 발달(發達)하였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경기도(京畿道)의 광주요(廣州窯)는 범천리(梵川里)로부터 좌우(左右)로 나누어 좌측(左側)은 도마리(道馬里), 우측(右側)은 우산리(牛山里) 방면(方面)을 향(向)해 있으므로 용제총화(慵齊叢話)에서 “좌우(左右)로 나누어”라고 지적(指摘)한 것은 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광주요(廣州窯)에 관(關)하여는 별장(別章)에 논(論)하기로 한다.

화원(畵員)에 관(關)한 문제(問題)로서 도자기(陶磁器)에 그림을 어떤 절차(節次)에 의해서 누가 그렸는가 하는 것도 중요(重要)한 문제제시(問題提示)가 된다. 성종(成宗) 12年(1481)에 완성(完成)된 것으로 동(同)18年 개정(改訂)되고 연산군(燕山君)때 또 개정(改訂), 중종(中宗)때에 이르러 증보(增補)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자기(磁器) 및 도기(陶器)의 산지(產地)가 기록(記錄)되어 있는데 그 속에 「매세(每歲) 사용원관(司饗院官)이 화원(畵員)을 인솔(引率)하여 어용(御用)의 기(器)를 감조(監造)한다。」¹⁵⁾라고 실려 있다. 이 기록(記錄)으로서 본다면 왕궁봉사(王宮奉仕)의 화원(畵員)이 사용원(司饗院)에 인솔(引率)되어 도자기제조소(陶瓷器製造所)에 갔다는 사실(事實)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청(回靑)은 구(求)하기 어려운 품물(品物)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적에도 신중(愼重)을 기했을 것이고 그릇을 구울 때에도 정성(精誠)을 다하였을 것이다. 화원인솔(畵員引率)에 관(關)한 기록(記錄)은 광주조(廣州條)에만 나와 있다. 청화(靑華)는 조선말기(末期)까지 광주(廣州)에서만 구웠기 때문에 지방(地方)의 타요(他窯)에서는 그

14)慵齊叢話 第10卷

15)新增東國輿地勝覽 京畿道 廣州條(土產) 「絲麻 磁器 每歲 司饗院官率畵員 監造御用之器 陶器」

예(例)를 찾을 수 없다. 또 사용범위(使用範圍)도 왕궁(王宮) 연례용(宴禮用)이 많고 관인(官人)은 제기(祭器), 주기(酒器)에만 사용(使用)이 허용(許容)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후기(後期)에 와서는 문방구(文房具)의 청화(靑華)가 관인(官人)에게 허용(許用)되었고 연적(硯滴) 화장구(化粧具) 등(等)이 일반사인(一般士人)에게 묵인(默認)되었을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2) 중기(中期)의 요업(窯業)

조선 중기(中期) 요업(窯業)은 중종(中宗)에서 17대(代) 효종(孝宗)까지로 본다. 조선 중기초(中期初)에 제조(製造)되는 종류(種類)는 분청화문(粉靑花文), 백자(白磁), 철사(鐵砂), 청화(靑華), 잡유(雜釉) 등이었는데 이 중(中)에서도 청화(靑華)는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세종(世宗)때부터 제조(製造)되어 50년을 경과(經過)하는 동안 양적(量的)으로도 많아졌으며 질적(質的)으로도 중국(中國)과 다를 바 없는 우수(優秀)한 것이 생산(生産)되었고 또 중국(中國)의 모방시대(模倣時代)를 지나 대체(大體)로 조선적 개성(個性)을 나타내고 있는 시대(時代)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려자기(高麗磁器)나 조선자기(磁器)는 처음에는 대륙(大陸)의 것을 모방(模倣)하였으나 점차(漸次)로 이에서 탈피(脫皮)하여 곧 우리 민족성(民族性)에 맞는 작품(作品)을 만들기 시작한다. 중기(中期)의 작품(作品)은 중국적(中國的) 풍(風)은 완전(完全)히 사라지고 우리의 독창적(獨創的)인 작품(作風)으로 바뀌어진다. 중기초(中期初)의 작품(作品)을 현존(現存)하는 호(壺)에는 견창(肩窓)에 매(梅)를 그려놓은 것, 호(壺)의 요(腰)에 일선(一線)

을 그어서 야초(野草)를 아주 연하게 그려놓은 것, 송학(松鶴)등을 그려놓은 것이 있다. 어느 것이나 이 시대(時代)의 작품(作品)은 우수(優秀)하여 아무렇게나 한 것이 없다. 이조(李朝) 중기(中期)에는 야초(野草)를 그린 것이 많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理由)에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종(中宗)때 유명(有名)한 대유(大儒) 이이(李珣)의 모(母)요 감찰어사(監察御使)였던 이원수(李元秀)의 처(妻)인 신사임당(申師任堂)은 특(特)히 야초(野草), 포도(葡萄) 초충(草蟲) 등의 화(畫)에 능(能)하여 조선사회(社會)에서 규수화가(閩秀畫家)의 제일인자(第一人者)로 손꼽혔다. 그가 그린 그림은 왕궁(王宮)에서 후비(后妃), 여관(女官) 등(等)의 애호(愛護)를 받았다. 이 시대(時代)에는 규방(閨房)의 자수(刺繡)에도 야초(野草)가 많이 수 놓여졌으며 대비(문정왕후(文定王后))가 섭정(攝政)으로 향연(饗宴)을 베풀었을 때에도 야초(野草)를 그린 호(壺)가 사용(使用)되었다.¹⁶⁾ (왕(王)인 경우에는 용호(龍壺)를 사용(使用)) 이와 같이 조선때에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야초(野草)를 좋아하였는데 한때 야초(野草)붐이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勿論) 중기(中期)만 야초(野草)를 그렸다는 것은 아니다. 중기(中期) 이전(以前)의 작품중(作品中)에도 야초(野草)가 그려진 그릇을 볼 수 있다. 명종(明宗)때에는 매(梅), 포도(葡萄) 등의 청화(靑華)로서 매우 우수(優秀)한 작품(作品)이 나온다.

선조(宣祖)는 그림을 좋아하였으며 특(特)히 죽(竹)을 좋아했다. 선조초기(宣祖初期)에는 왕(王)이 제도(製陶)에 관심(關心)이 깊어 청화(靑華)의 좋은 작품(作品)이 만들어지고 있다.¹⁷⁾ 그러나 임진난(壬辰亂) 때 왜(倭)의 침입(侵入)을 받아 전국(全國)은 황폐(荒廢)해지고 왜인(倭人)들이 도공(陶工)을 납치(拉致)해 가려고 도자소(陶磁所)를 찾아 다녔기 때문에 전국(全國)의 도공(陶工)과 도자소(陶磁所)를 숨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임

16) 浜口良光著 朝鮮の工藝 p53 (1973年) 美術出版社

17) 浜口良光著 朝鮮の工藝 p56 (1973年) 美術出版社

난(任亂)때에는 사회적(社會的)으로 극심한 혼란기(混亂期)를 당하여 요업(窯業)에도 커다란 지장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침입(侵入)한 왜인(倭人)들에 의하여 조정(朝廷)의 연례용(宴禮用) 용준(龍樽)마저도 약탈(掠奪)당하게 되자 사옹원(司饗院)에서는 자기(磁器)의 사용한계(使用限界)를 정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사옹원(司饗院)의 자기(磁器)는 구례(舊例)에 따라 대전용(大殿用)으로는 백자(白磁), 동궁용(東宮用)으로는 청자(靑磁), 내자(內資) 내섬(內贍) 예빈(禮賓) 등은 청홍아리기(靑紅阿里器)를 사용(使用)토록 하고 「사대부(士大夫)에게도 백자(白磁)의 사용(使用)을 허용(許用)하였다.」¹⁸⁾ 청홍아리기(靑紅阿里器)는 회청(回靑)을 소량사용(小量使用)하여 동분(銅粉)을 다소 넣어서 제조(製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작품(作品)은 평소(平素)에 잘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백자(白磁)의 사용금지(使用禁止)가 세조(世祖)때 있었고 60년이 경과(經過)하여 다시 금지(禁止)되었으나 관인(官人)들은 백자(白磁)를 그대로 사용(使用)하였으므로 법령(法令)으로서만 그 사용(使用)이 해제(解除)나 금지(禁止)로 바뀔 뿐이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기(中期)는 앞서서도 말한 바 사회적(社會的)으로 불안(不安)하고 대외무역(對外貿易)도 원만(圓滿)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요업계(窯業界)로 볼 때 이는 일대(一大) 수난(受難)의 시대(時代)라고 할 수 있다.

3) 후기(後期)의 요업(窯業)

조선 후기초(後期初)의 도자기(陶磁器)의 발달(發達)은 불만하다. 백자(白磁) 청화등(靑華等)에 있어 극히 우수(優秀)한 작품(作品)이 만들어지고 진사제작(辰砂製作)도 성공(成功)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조서후기말(後期末)에는 사회적(社會的) 불안(不安)으로 인(因)하여 점차 퇴폐(頹廢)의 경향(傾向)으로 기울기 시작(始作)하였다.

영조(英祖) 2년에 어기번조(御器燔造)의 시산(柴山)의 나무를 채벌(採伐)하는 자(者)에게 엄(嚴)하게 처벌(處罰)하도록 명(命)이 내려 작벌(斫伐)한 자(者)는 원릉(園陵)의 수목(樹木)을 도벌(盜伐)한 자(者)와 같은 벌(罰)로 다스릴 것이라 하였다.¹⁹⁾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當時) 어기번조(御器燔造)에 관(關)하여 관심(關心)이 많았으며 이로 인(因)하여 우수(優秀)한 작품(作品)이 만들어졌다고 보겠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司饗院 燔造磁器 一次 二次 春秋進上 廣州 楊口 晉州 昆陽 最宜燔土處 掘取般運 燔造時斫

(사옹원 번조자기 일차 이차 춘추진상 광주 양구 진주 곤양 최의번토취 굴취반운 번조 시작)

木 地方邑則三十稅一 所經各邑物稅爲者 守令拿處監官色吏 決杖定配◎本院江筏收稅 勿論內(목 지방읍척삼십세일 소경각읍물세위자 수령나처감관색리 결장정배◎본원강벌수세 물론내)

需司木物 炤硝廳吐土每十木稅◎收稅時 若取有用木者 監官決杖遠配 燔官以贓律論」(수사 목물 소초청토토매십목세◎수세기 약취유용목자 감관결장원배 번관이장울론)²⁰⁾이라 하였으니, 어기제작(御器製作)에 있어서 엄(嚴)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조(英祖) 30년에 자기(磁器)에 관(關)한 기록(記錄)으로서 「敎曰 磁器之畫 古用石間朱 令聞以回靑畫之云 此亦侈風 此後畫龍樽外 一切嚴禁」(교왈 자기지화 고퉁석간주 영문이회청화지

18) 光海君 日記 8年 「至於饗院沙器 大殿則用白磁器 東宮則用靑磁器 如內資 內贍 禮賓寺所用則並例用靑紅阿里器 士大夫所用許容常白磁」

19) 英祖實錄 5年 10月 24日 己酉條

20) 經國大典 卷六 工典 雜令

운 차역치풍 차후화룡준의 일절업금²¹⁾이라 한 것을 보면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회청(回靑)은 중국(中國)에서 수입(輸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사옹원(司饗院)에서는 매년(每年) 화원(畫員)을 인솔(引率)하고分院(分院)에 나가 궁중(宮中)에서 사용(使用)하는 자기(磁器)에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특히 문인(文人) 사대부용(士大夫用)으로 만든 필통(筆筒), 연적(硯滴) 같은 문방구류(文房具類)의 대부분(大部分)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보겠다. 이때分院(分院)에서 종사하던 감관이하(監官以下) 잡역(雜役)까지 합치면 그 총수는 550여명(餘名)이었다²²⁾하니分院(分院)의 자기제작(磁器製作)은 매우 번창(繁昌)하였다고 보겠다. 영조(英祖)·정조(正祖) 때는 국가(國家)의 재정(財政)이 곤핍(困乏)한 시대(時代)였으나 제도(製陶)의 기술(技術)은 발달(發達)하였고 화원(畫員)도 많이 배출(配出)되었었다. 당시(當時)에 화가(畫家)로서 작품(作品)을 남긴 사람을 열거(列舉)하면 안국현(安國鉉), 이성림(李聖林), 이인문(李寅文), 김광우(金鑛宇), 석유겸(釋有謙), 민관(敏寬), 관노당(觀盧堂), 신윤복(申潤福), 김신신(金頤臣), 이수민(李壽民), 석상계(釋相溪), 이명기(李命基), 신위(申緯)²³⁾ 등이었고, 그 외(外)에도 화원(畫員)이 아닌 문인(文人)으로서 서(書)와 화(畫)에 능(能)한 대가(大家)가 많았다는 사실(事實)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事實)이라고 하겠다.分院(分院)에는 고송류수관(古松流水館) 이인문(李寅文)이 체재(滯在)하여 화(畫)를 그렸고 그 외(外)에도 많은 화원(畫員)이 상주(常住)하였으며, 그리하여 청화(靑華)의 좋은 작품(作品)이 만들어졌었다. 분주원보등(分廚院報騰)에는分院(分院)종사원(分院從事員)을 552명(名)이라고 하였으며 그 중(中)에 청화장(靑華匠) 14명(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장(匠)이란 말이 붙은 것으로 보아 화원(畫員)이 아닌 직인(職人)으로서 청화(靑華)를 그릴 수 있는 자(者)를 말함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화원(畫員)이 직접 붓을 들고 그린 작품(作品)도 많다고 보겠다. 회청(回靑)의 원료(原料)가 귀(貴)한 것으로 아무나 함부로 그릴 수 없고, 또 유약(釉藥)을 발라 건조(乾燥)하게 되면 마치 나무 껍질이 일어나듯이 부풀 부풀해지기 때문에 붓을 두 번 댈 수 없다. 그러므로 숙달(熟達)된 화가(畫家)가 아니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니 일정한 사람을 선정(選定)하여 그리게 한 것으로 추측(推測)할 수 있다.

그런데分院(分院)에서는 어느 정도(程度)의 도자기(陶磁器)가 생산(生産)되었을까?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의(依)하면 「各樣沙器 千三百七十三竹 燔隨進上(廟社殿宮陵園墓祭器及內局藥用件同輸納) 內外頒賜及堂郎封餘各所例送」(각양사기 천삼백칠십삼죽 번수진상 묘사전궁능원묘제기급내국약용건동수납 내외반사급당랑봉여각소례송)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일죽(一竹)이라 함은 20개(個)이니 각종(各種)의 번조(燔造) 자기수(磁器數)는 2萬7千4百60個임을 알 수 있다. 조선말(末)에 와서 서양(西洋)과 무역(貿易)이 성(盛)하여 서양(西洋)의 코발트가 수입(輸入)되면서부터 청화(靑華)는 탁(濁)하게 되었고 백자(白磁)도 양질(良質)의 대토(臺土)를 얻지 못하여 백(白)은 회색(灰色)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리하여 조선말(末) 고종(高宗) 20年(1883)에 관요(官窯)를 폐(廢)하니 민요(民窯)가 당분간 계속되다가 기술자(技術者) 즉(卽) 도공(陶工)들이 흩어지니 광주(廣州)의 요(窯)는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 조선자기(磁器)를 논(論)할 때 광주요지(廣州窯址)를 빼놓을 수는 없다. 다음에 문헌상(文獻上)에 나타난 광주요지(廣州窯址)를 중심(中心)으

21) 英祖實錄 英祖 30年 7月 17日 甲午條

22) 靑磁와 白磁 金洪섭 著 교양국사총서 3,

23) 陶器全集 12 李朝 淺川伯教 平凡社 別表資料

로 당시(當時)의 도자관계(陶磁關係)를 논(論)하고자 한다.

4) 광주(廣州)의 요지(窯址)

옛날 요소(窯所)로 적당한 곳은 도토(陶土)와 물과 시목(柴木)의 세가지 요소(要素)가 구비(具備)된 곳이라야 된다고 본다. 당시(當時) 서울과의 교통(交通)의 편리등(便利等)을 감안하여 볼 때 광주(廣州)는 최적(最適)의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도자사(陶磁史)를 연구(研究)함에 있어 광주(廣州)를 답사(踏查)치 않고서는 그것을 논(論)할 수 없을 것이다.

문헌상(文獻上)에 나타난 광주요(廣州窯)에 관한 최초(最初)의 기록(記錄)으로서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 지리서(地理書)에 나타난 것을 정리(整理)하면 다음과 같이 열기(列記)할 수 있다.

- 자기소(磁器所) 광주(廣州) 4
 - 一. 제주동벌을천 상품(在州東伐乙川 上品)
 - 一. 제주동소산(在州東所山)
 - 一. 제주남석굴리 개하품(在州南石堀里 皆下品)
 - 一. 제주동고현 품위불명(在州東羔峴 品位不明)
- 도자소(陶磁所) 광주(廣州) 3
 - 一. 제주남초현 중품(在州南草峴 中品)
 - 一. 제주동초벌리(在州東草伐里)
 - 一. 제주서리관 개하품(在州西里串 皆下品)

벌을천(伐乙川)에서 상품(上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관요(官窯)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강(漢江)의 지류(支流)로서 광주군(廣州郡)의 중앙(中央)을 흐르는 광안천(廣安川)이 있고 그 분류(分類)로서 번천(樊川), 소천(蘇川)이 있다. 이 번천(樊川)이 즉(卽) 벌을천(伐乙川)이다.

번천(樊川)에 연(沿)하여 번천리(樊川里)가 있고 이곳에서 발견(發見)되는 도자편(陶磁片)을 보면 고려말기(高麗末期)부터 조선초(初)에 걸쳐 상품(上品)의 자기(磁器)를 번조(燔造)한 것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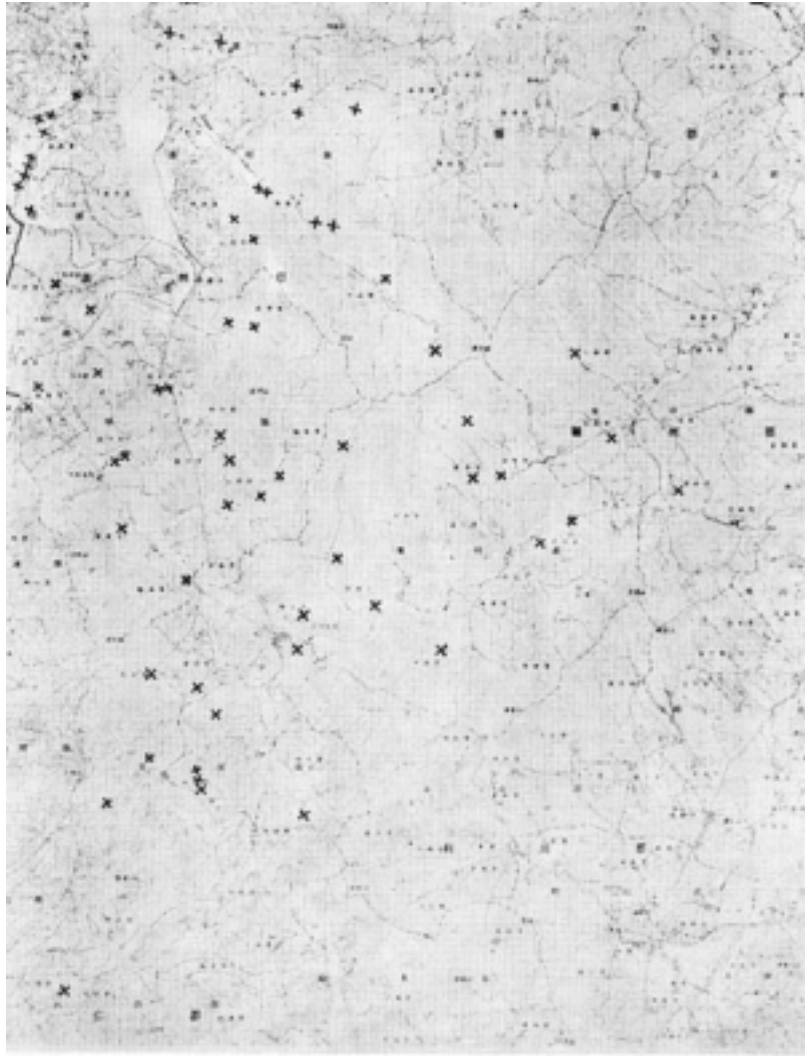
광주군내(廣州郡內) 중앙(中央)을 흐르고 있는 광안천(廣安川)을 중심(中心)으로 그의 지류(支流)로서 곤지암천(昆址岩川)과 앞에서 말한 번천(樊川) 우천(牛川)(소천(蘇川) 죽천(竹川))이 있으니 이 강(江)들에 연(沿)한 실촌면(實村面), 도척면(都尺面), 초월면(草月面), 경안면(慶安面), 퇴촌면(退村面), 남종면(南終面) 일대(一帶)에 무수(無數)히 많은 요지(窯址)를 발견(發見)할 수 있다. (광주군고요(廣州郡古窯) 지분포도(址分布圖) 참조(參照)) 곤지암천(昆址岩川) 지역(地域)인 도척면(都尺面) 궁평(宮坪)에 이르면 지명(地名)이 요(窯)와 관계(關係)있는 곳이 많다. 궁평리(宮坪里)가 궁중(宮中)의 어기(御器)를 제조(製造)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이곳의 도궁초등학교(陶宮初等學敎)가 그렇다.

도궁초등학교(陶宮初等學敎) 맞은 편 외뿔산 아래 광주(廣州)에서 가장 늦게까지 존재(存在)했던 요지(窯址)가 있다. 현상태(現狀態)로는 상부(上部)·구조(構造)는 알 수 없으나 평면(平面)은 그대로 남아 있다. 총(總) 12칸(間)으로 된 요지(窯址)는 밑부분(部分)의 일칸(一間)은 불을 지피던 곳이고 맨 윗 부분(部分)은 연통부분(部分)으로서 도자기(陶磁器)를 굽던 실간수(實間數)는 10칸이 된다. 동북향(東北向)으로 길이 27m 46cm

의 가마를 만들었으며, 간(間)막이 두께는 23cm로 밑부분은 3개의 화구연결통(火口連結通)으로 되어있다. (圖 1) 현지(現地)에 살고 있는 안광현노인(安廣鉉老人)(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京畿道 廣州郡 都尺面 宮坪里)27, 1914年生 63歲)의 말에 의(依)하면 관요(官窯)가 없어지고 민요(民窯)로서 유지(維持)되다가 1922년에 폐요(廢窯)가 되었다고 한다.

이 곳에서 수집(蒐集)된 파편(破片)은 극히 후대(後代)의 것이 많다. 궁평리(宮坪里) 뒷등불 아래 궁창(宮槍)골이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發見)되는 도편(陶片)은 중기(中期)의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용두산(龍頭山) 중턱에 있는 요지(窯址)에서는 용호(龍壺)가 제조(製造)된 곳으로 보인다. 이 곳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두 요(窯)와 관계(關係) 있는 이름이 붙어 있으며 5-6개소(個所)의 요지(窯址)를 볼 수 있고 파편(破片)은 도처(到處)에 흩어져 있다. (圖 2) 요(窯)에는 세가지 요소(要素)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중(中)에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자원(資源)은 시목(柴木)이다. 이는 타처(他處)에서 운반(運搬)하기가 어려우니 부득이(不得已) 요(窯)를 옮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많은 요지(窯址)가 있는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또한 수집(蒐集)된 파편(破片)의 굵을 보고 요지(窯址)의 선후(先後) 이동(移動)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남종면(南終面)에 요(窯)를 축조(築造)하게 된 것은 영조(英祖) 28年(1752)으로 양근읍지(楊根邑誌) 토산부(土産部)에 보면 「壬申에 廣州 燔造所를 郡南五十里 南終面に 移設하다」(임신에 광주 번조소를 군남오십리 남종면에 이설하다)고 하였으며, 「每歲 司饗院에서 監造하여 進上한다」(매세 사옹원에서 감조하여 진상한다)²⁴)고 하였다. 즉(卽) 남종면(南終面)은 한강(漢江)에 가깝고 또한 상류(上流)의 양구지방(楊口地方)에서 도토(陶土)를 운반(運搬)하기가 편리(便利)하며 도기제품(陶器製品)을 한강(漢江)의 주운(舟運)을 이용(利用)하여 서울로 운반(運搬)하기가 용이(容易)하였으므로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진다.

24) 英祖 28年 楊根邑誌 土産部



官窯址 踏査地域(×表)

고요지 답사지역(古窯址 踏査地域)(×表)

22대 정조(正祖) 20년에 「사용원(司窰院)에서는 분사(分司)를 광주(廣州)에 두고 자기(磁器)를 만들게 하였다」²⁵⁾ 남종면(南終面)으로 요지(窯址)가 옮겨진 것은 영조(英祖)이나 사용원(司窰院)의 분사(分司)를 광주(廣州)에 설치(設置)한 것은 정조(正祖)때라고 보여지며 이리하여 분원(分院)이라는 지명(地名)이 붙게 된 것이다. 남종면(南終面) 분원리(分院里)에 있는 분원초등학교(分院初等學敎) 운동장(運動場)은 원래(元來)는 요지(窯址)로서 지금도 수(數)없는 파편(破片)이 흩어져있다(圖 3). 분원(分院)은 1882년 궁영(宮營)이 폐지되자 잠시 민영화(民營化)로 옮겨 운영(運營)될 때까지 조선왕조(朝鮮王朝) 도자기(陶磁器)의 최후(最後)의 보루(堡壘)가 되었다. 분원요지(分院窯址)는 일제시대(日帝時代)에 바로 그 자리에 학교(學校)를 짓느라고 크게 파괴(破壞)되었다.²⁶⁾ 그리고 분원초등학교(分院初等學敎) 교정(校庭)에 번조관(燔造官)의 선정비(善政碑)를 모

25) 浜口良光 朝鮮の工藝 619 美術出版社 1960

26) 鄭良謨 韓國美術全集 10 李朝陶磁 p9 同和出版社 1973

아둔 것을 보면 옛날 이곳에 요업(窯業)이 번창(繁昌)했음을 짐작하게 된다. (圖 4)

광주(廣州)의 요지(窯址)에서 제조(製造)된 작품(作品)은 분청사기(粉靑沙器) 백자(白磁) 청화(靑華) 철사등(鐵砂等)이었으며 특(特)히 청화(靑華)는 조선말기(末期)를 제외(除外)하고는 모두 이곳에서 독점(獨占)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요업계(窯業界)는 영조(英祖)와 정조(正祖)를 정점(頂點)으로 차차 쇠퇴(衰退)하기 시작(始作)하여 조선말(末) 고종(高宗) 때에는 서양(西洋)과의 교역(交易)이 성(盛)하여 서양(西洋)의 코발트가 수입(輸入)되므로써 청화(靑華)는 탁(濁)하게 되고 백자(白磁)도 양질(良質)의 태토(胎土)를 선정(選定)하지 않았기에 백(白)은 회색(灰色)으로 되어 버렸으며, 고종(高宗)년에는 드디어 관요(官窯)를 폐지(廢地)하기에 이르렀다. 이라하여 이 분원(分院)의 직인(職人)들은 각처(各處)로 분산(分散)하게 되었으며 청화(靑華)도 타요지(他窯址)에서 저질(低質)의 것이 만들어졌다.

2. 조선도자기(陶磁器)의 종류(種類)

1) 분청사기(粉靑沙器)

분청(粉靑)이란 넓은 의미(意味)로 청자(靑磁)와 같이 회색(灰色) 또는 회흑색태토(灰黑色胎土) 위에 백토(白土)로 표면(表面)을 분장(粉粧)하고 그 위에 회청색(灰靑色)의 유약(釉藥)을 시유(施釉)한 사기(沙器)를 말한다. 분청(粉靑)은 여러 가지 종류(種類)로 분류(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분청사기인화문(粉靑沙器印花文)
- ② 분청사기상감문(粉靑沙器象嵌文)
- ③ 분청사기조화문(粉靑沙器彫花文)
- ④ 분청사기철화문(粉靑沙器鐵花文)
- ⑤ 분청사기귀얄文(粉靑沙器귀얄文)
- ⑥ 분청사문(粉靑沙文)²⁷⁾

분청(粉靑)은 전국적(全國的)으로 제조(製造)되었는데 백토(白土)로 분장(粉粧)한 것은 남방연안(南方沿岸)에 많으며 분청사기(粉靑沙器) 인화문(印花文)은 도술(陶術)이 운학문청자(雲鶴文靑磁)의 여류(餘流)로서 북방(北方)에서 일어나 전자(前者)는 북진(北進), 후자(後者)는 남진(南進)하여 계룡산부근(鷄龍山附近)에서는 양자(兩者)의 파편(破片)이 수집되는 것으로 보아 동지역(同地域)에서는 두가지가 동시(同時)에 번조(燔造)되었음을 입증(立證)한다. 분청(粉靑)은 사용역소명(使用役所名)을 넣어 만든 것이 많다. 예(例)를 들면 내섬(內贍) 예빈(禮賓) 내자사(內資寺) 인수부(仁壽府) 장흥부(長興府) 등(等)으로 그 역소명(役所名)을 상감(象嵌)하였든가(초기요업(初期窯業)에서 지적한 바 있기에 설명을 략(略)함) 아니면 「공(公)」 「대(大)」 「산(山)」 「사(司)」 등(等) 일자(一字)를 압날(押捺) 또는 조각(彫刻)하여 있는 것이 있다. 또한 희귀(稀貴)한 것으로는 백상감(白象嵌)이 아니고 철사(鐵砂)로 쓰여진 것도 볼 수 있다.

분청(粉靑)의 문양(文樣)은 색채(色彩)에 우선 성공(成功)하고 있다. 즉(卽) 태토(胎土)가 청회토(靑灰土) 화장토(化粧土)일 때의 백색(白色) 철유(鐵釉)의 흑색(黑色)등은 조화(調和)가 잘 맞았다고 보겠다. 문양(文樣)의 종류(種類)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제일 많이 사용(使用)되고 있는 것을 목단(牧丹), 인삼(人蔘)의 꽃 엽련

27) 鄭良漢 韓國美術全集 10 李朝陶磁 p6 同和出版社 1973

(葉蓮), 수조(水鳥), 어(漁), 당초(唐草), 화당초(花唐草), 류(柳), 초엽(草葉), 화점선(花點線) 등(等)이고 파초운(芭蕉雲) 가(家) 등(等)은 희귀품(稀貴品)이다. 문양(文樣)은 사실적(寫實的)이 못하고 거의가 도안화(圖案化)되어 있으며 그 도안(圖案)도 아무 그릇에나 무분별(無分別)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사용(使用)하는 용송(用送)에 따라 알맞은 문양(文樣)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特徵)이라 할 수 있다. 분청(粉靑)이 시작(始作)된 것은 고려말기(高麗末期) 충열왕시대(忠烈王時代)로부터이며 조선초기(初期)이후(以後) 약(約) 510여년간(餘年間)의 전성기(全盛期)를 지나 이후(以後) 여류(餘流)가 선조(宣祖)때까지 내려와 전후(前後) 약(約) 200년간(年間)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당시(當時)에 유행(流行)한 부장품(副葬品)으로 많이 사용(使用)되었고 이를 입증(立證)하는 것으로는 만력(萬曆) 15年(1587)의 연호(年號)가 들어있는 분청묘지명(粉靑墓地名)이 존재(存在)하기 때문이다²⁸⁾ 라고 하였는데 이는 선조(宣祖) 18年으로 임난전(壬亂前)에 만들어진 것이다. 분청(粉靑)의 요적(窯跡)은 경기도(京畿道) 이남(以南)에 많으며 초기(初期)의 도자소(陶磁所)는 대부분(大部分) 분청(粉靑)이었기에 100여개소(餘個所)가 넘었다고 생각된다. 분청(粉靑)으로서 우수(優秀)한 작품(作品)이 만들어진 곳은 계룡산(鷄龍山)으로 볼 수 있다.

계룡산(鷄龍山)은 대전(大田) 서방(西方) 약(約) 12km의 지점(地點)으로 충남(忠南) 공주군(公州郡) 반포면(反浦面) 학봉리(鶴峰里) 일대(一帶)이다. 이 계룡산(鷄龍山)은 옛날부터 알려진 명산(名山)으로 이 부근(附近)은 백제(百濟)의 구도(舊都)요 또한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즉위원년(即位元年) 이곳에 천도(遷都)코자 계획(計劃)한 일이 있어 이곳에 초석(礎石)이 지금도 남아 있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이곳에 많은 절을 세워 지금도 동학사(東鶴寺) 갑사(甲寺) 신원사(新元寺) 등(等)의 사찰(寺刹)이 있고 암자(庵子)가 산주위(山周圍)에 산재(散在)하여 있다. 조선때의 배불책(排佛策)으로 수많은 사원(寺院)은 압박(壓迫)을 받게 되었고 사원(寺院) 경제(經濟)는 극도로 궁핍(窮乏)하여 사장(寺莊)에 요(窯)를 설치(設置)하여 생계(生計)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因)해서 계룡산(鷄龍山) 주위(周圍)에는 수많은 요지(窯址)를 발견(發見)할 수 있었다. 계룡산(鷄龍山) 고요지중(古窯址中)에 진령면(鎭峯面) 사곡(寺谷)의 요(窯)는 고려말기(高麗末期)로 추정(推定)되는 청자편(靑磁片)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가장 오래된 요지(窯址)라고 할 수 있다. 계룡산(鷄龍山)麓(麓)陶窯址는 40개소(個所)가 발견(發見)되었다.²⁹⁾

28) 浜口良光 朝鮮の工藝 p74 美術出版社 1960

29) 尹龍二 鷄龍山麓 陶窯址調査 第20回 歷史學大會 考美術部發表會 1977. 5. 28

鷄龍山麓 陶窯址調查 第20回 歷史學大會 考美術部 發表統計資料
 (계룡산록 도요지조사 제20회 역사학대회 고미술부 발표통계자료)

종류(種類) 요지(窯址)	청자(靑磁)		철화분청(鐵畫粉靑)귀얄		인화분청(印花粉靑)		백자(白磁)		철화백자(鐵畫白磁)		흑유(黑釉)		계
	구(舊)	신(新)	구요(舊窯)	신요(新窯)	구요(舊窯)	신요(新窯)	구(舊)	신(新)	구(舊)	신(新)	구(舊)	신(新)	
학봉리(鶴峰里)			7	2	1	2	1	2	2	1	1	1	20
온천리(溫泉里)						4		1					5
공암리(孔岩里)						1		1		1			3
화산리(花山里)			1					3				1	5
진잠면(鎭岑面)	3							3					6
신도내(新都內)							2	1					3
계	3		8	2	1	7	3	11	2	2	1		
	3		10		8		14		4		3		42

위의 表는 1927년에 고적조사발견요지(古蹟調査發見窯址)가 11개소(個所)이었는데 새로 발견(發見)된 이조도자요지(李朝陶磁窯址)가 4개소(個所)이고 현재(現在)까지 새로이 발견(發見)된 요지(窯址)가 20여개소(餘個所)로 총(總) 40개소(個所)의 요지(窯址)가 발견(發見)되었으며 여기에서 각종(各種)의 도자기(陶磁器)를 번조(燔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룡산록(鷄龍山麓) 도요지(陶窯址)의 파편(破片)의 분포상황(分布狀況)을 보면 전기(前期)에는 각종(各種)의 분청(粉靑)이 그리고 말기(末期)에는 백자(白磁)가 만들어졌다고 보겠다.

2) 백 자(白磁)

우리나라 도자(陶磁)는 청자(靑磁)에서 분청(粉靑), 분청(粉靑)에서 백자(白磁)로 내려와 결국(結局) 백자(白磁)에서 낙착(落着)된다.

청화(靑華) 철화(鐵畫) 진사(辰砂) 등(等)은 백자(白磁)의 장식(裝飾)에 불과(不過)하다고 하겠다. 조선에서 백자(白磁)를 만들게 된 것은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백자(白磁)와 관련(關聯)이 있다고 보아 마땅하다. 고려백자(高麗白磁)를 보고 매력(魅力)을 느껴 만들고 싶은 충동(衝動)이 일어났다고 보나 고려백자(高麗白磁)와 조선백자(白磁)는 근본적(根本的)으로 많은 차이점(差異點)을 갖고 있음을 발견(發見)할 수 있다. 고려백자(高麗白磁)는 미술품(美術品)이고 귀족적(貴族的)이고 이성적(理性的)이고 장식적(裝飾的)인데 반(反)하여 조선백자(白磁)는 공예품(工藝品)이고 서민적(庶民的)이고 감정적(感情的)이며 실용적(實用的)인 것이다.

보통 조선백자(白磁)라고 칭(稱)하는 것은 고려말기(高麗末期)부터 광주요(廣州窯)에서 시작(始作)하였다. 조선초기(初期)는 전국각지(全國各地)에 백토(白土)가 발견(發見)되어 제조(製造)되고 있었으나 그 수(數)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초기(初期)의 요지(窯址)로서 가장 우수(優秀)한 작품(作品)을 만들었던 곳은 경기도(京畿道) 광주(廣州), 경상북도(慶尙北道) 고령(高靈), 청송(靑松), 경상남도(慶尙南道) 하동군(河東郡), 산청군(山淸郡), 단성면(丹城面) 운리(雲里), 전라남도(全羅南道) 순천(順天), 황해도(黃海道) 웅진(甕津) 등(等)이다.³⁰⁾ 그 중(中)에서도 산청군(山淸郡) 단성면(丹城面)의 요지

(窯址)에서 발견(發見)된 파편(破片)을 보면 고려(高麗) 백자(白磁)에 비길만한 작품(作品)이라고 보겠다. 이는 산청군(山淸郡) 일대(一帶)에서 출토(出土)되는 양질(良質)의 백토(白土)에 기인(起因)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양적(量的)으로나 질적(質的)으로나 광주(廣州)의 요(窯)에 당할 수는 없었다. 초기(初期) 왕실용(王室用)의 백자(白磁)는 광주(廣州)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주군(廣州郡) 퇴촌면(退村面) 우산리(牛山里) 및 초월면(草月面) 도마리(道馬里)의 2개(個)요지(窯址)에서 왕실용(王室用)의 좋은 도자기(陶磁器)를 굽고 있었다.³¹⁾ 중기(中期)에 와서 많은 제기(祭器)는 자기(磁器) 또는 목기(木器)를 사용(使用)하도록 권장(勸獎)하고 있어 많은 자기(磁器)가 번조(燔造)되고 있으며 우수(優秀)한 작품(作品)은 도척면(都尺面)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후기(後期)에 와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마리(道馬里)의 요(窯)는 금사리(金沙里)로 옮겨지고 영조(英祖) 때 남종면(南終面)으로 옮겨져서 말기(末期)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번조(燔造)되고 있었다.

백자(白磁)로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호식기(壺食器), 제기(祭器), 연적(硯滴)等이며 지방민요(地方民窯)에서는 백토(白土)는 발견(發見)하였어도 왕실용(王室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품(佳品)을 제조(製造)하지 못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도자(陶磁)의 나라로 어느 가정(家庭)없이 마당에는 수많은 옹기(甕器)를 볼 수 있으며, 주방방상(廚房床)에는 백자(白磁)의 호(壺)가 많이 진열(陳列)되어 있는 것을 본다. 백자(白磁)의 형태(形態)는 시대(時代)에 따라 변화(變化)하는 데 초기(初期)는 구연부(口緣部)가 낮고 굽이 높아 안전성(安全性)을 갖다가 점차 후기(後期)로 내려오면서 구연부(口緣部)가 높고 굽이 없어져 가는 한편 중기이후(中期以後)에는 호(壺)의 형태(形態)도 둥근형(型)이 많으며 말기(末期)에 와서는 장호형(長壺形)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는 번조(燔造)시 횡적(橫的) 면적(面積)을 피(避)하기 위한 방편(方便)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진 사(辰砂)

진사(辰砂)란 순도(純度)높은 백토(白土)로 성형(成形)된 기면(器面)에 산화동(酸化銅)으로 시문(施文)하여 백자유(白磁釉)를 시유번조(施釉燔造)하면 환원상태하(還元狀態下)에서 산화동(酸化銅)이 환원(還元)되어 문양(文樣)이 붉게 나타난 자기(磁器)를 말함이다.³²⁾ 진사(辰砂)는 중국(中國)에서 시작(始作)된 기법(技法)으로 제홍(祭紅), 선홍(鮮紅)等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사(辰砂)라고 하며 선홍사기(鮮紅沙器), 주점사기(朱點沙器), 진홍사기(眞紅沙器)라고도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진사(辰砂)는 고려자기(高麗磁器)에 시문(施文)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大部分) 부분적(部分的)으로 이용(利用)되고 있다. 진사(辰砂)의 원료(原料)는 분원요(分院窯)에서는 석록(石綠)(공작석(孔雀石) 산화동(酸化銅))이나 동분(銅分)이 함유(含有)된 것을 사용(使用)하였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불명(不明)한 일기기는 하나 소전색(燒錢色)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동(銅)을 주체(主體)로 하고 다른 금속(金屬)을 함유(含有)한 고전(古錢)을 분말(粉末)로 하여 사용(使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전(古錢)을 분석(分析)해 보면 동(銅)과 은(銀)의 합금(合金)인 것이다. 그렇다고 조선의 진사(辰砂)를 고려(高麗)의 유산(遺産)으로 단정(斷定)할 만한 형적(形跡)을 찾기는 무척 어렵다. 문헌상(文獻上)에 나타나기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이 강화도(江華島)에서 선홍사기(鮮紅沙器)를 번조(燔造)하다³³⁾

30) 淺川伯教 陶器全集 17 李朝 平凡社

31) 浜口良光 朝鮮の工藝 p76 美術出版社

32) 鄭良漢 韓國美術全集 10 李朝陶器 p10 同和出版社 1973

33) 淺川伯教 陶器全集 17 李朝編 p24 平凡社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선홍사기(鮮紅沙器)란 홍색회구(紅色繪具)를 사용(使用)한 자기(磁器)를 말함이니 이것은 진사기록(辰砂記錄)으로서 중요(重要)한 문헌(文獻)이라 생각된다. 진사(辰砂)는 백자(白磁)의 요(窯)에서 굽게 되면 성공률(成功率)이 적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은 백자(白磁)를 가장 많이 번조(燔造)하고 있어 진사(辰砂)의 성공률(成功率)이 낮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조기(李朝器)에 나타난 진사(辰砂)는 단색(單色)으로 문양(文樣)을 그린 것도 있으나 철사(鐵砂) 또는 청화(靑華)를 병용(併用)하고 있는 것이 보통(普通)으로 기전체(器全體)를 진사(辰砂)로 칠(漆)한 것도 보인다. 진사(辰砂)의 화(畵)는 학(鶴), 죽(竹), 매(梅) 등을 양각(陽刻)한 연적(硯滴), 유호(油壺) 등(等) 소품등(小品等)이 많다. 시대적(時代的)으로는 조선 중기말(中期末)부터 시작(始作)하여 후기(後期)에 와서 더 많으며 요지(窯址)는 분원(分院)이 가장 많고 강화도(江華島)에서도 파편(破片)을 수집(蒐集)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요(窯)가 있었음을 입증(立證)한다.

4) 철 사(鐵砂)

백자(白磁)에 철회구(鐵繪具)로 문양(文樣)을 시문(施文)한 것을 말한다. 철회구(鐵繪具)는 대부분(大部分) 석간주(石間硃)를 사용(使用)하고 있다. 이 석간주(石間硃)는 주토(朱土), 적토(赤土), 철주(鐵朱) 등으로도 불리우나 결국(結局) 이것은 산화철(酸化鐵)을 함유(含有)한 흙으로서 철회구(鐵繪具)를 도자기(陶磁器)에 사용(使用)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高麗時代)부터이다. 흑화자기(黑花磁器)가 그것이고 상감물(象嵌物)의 흑(黑)이 바로 그것이다.

대체적(大體的)으로 철사(鐵砂)는 회청(回靑) 수입전(輸入前)에 회구(繪具)로서의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하였고 수입후(輸入後)에도 회청(回靑)은 희귀품(稀貴品)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空間)을 충족(充足)시키기 위하여서도 많이 사용(使用)되었다. 철사(鐵砂)로 그려지는 그림은 매(梅), 죽(竹), 난(蘭), 화조(花鳥), 포도(葡萄), 용(龍) 등이 많다. 그 중(中)에서도 화원(畵員)이 그린 훌륭한 작품(作品)이 있는가 하면 도공(陶工)이 그린 유치한 것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철회구(鐵繪具)로 그린 용준(龍樽)은 하품(下品)이 많다. 철사(鐵砂)는 청화(靑華)와 같이 가는 붓으로 그린 것보다 회구(繪具)에 붓을 담백 담구어 굽은 선(線)으로 그린 그림이 많다. 또 어떤 형상(形象)을 그리지 않고 추상적(抽象的) 도안(圖案)을 그린 작품(作品)은 여백(餘白)을 살리는데 성공(成功)하고 있다.(圖 5)

5) 청 화(靑華)

우리나라에서 청화(靑華)가 번조(燔造)된 것은 세조(世祖)때일 것이라고 앞서도 논(論)한바 있지만 그보다 연대(年代)가 다소(多少) 더 거슬러 올라갈런지의 문제(問題)는 앞으로의 연구문제(研究問題)라고 보겠다.

이 청화(靑華)의 재료(材料)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회청(回靑)으로서 중국(中國)에서 수입(輸入)한 것이다. 회청(回靑)은 우리나라에서 입수(入手)하기가 어려워 귀중품(貴重品)으로서 기물전체(器物全體)에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많은 여백(餘白)을 남겨 두고 있어 담백(淡白)하다. 중기(中期)의 작품(作品)은 중국모방(中國模倣)을 완전히 탈피(脫皮)하여 우리나라의 독자적(獨立的) 특징(特徵)을 유감(遺憾)없이 표현(表現)하고 있다. 또 화제(畵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죽(梅竹), 포도(葡萄), 야초(野草) 등으로 되어 있다. 후기(後期)로 내려올수록 화(畵)가 차지하면 면(面)도 많아지고 그 색(色)도 탁(濁)한 토청(土靑)으로 변(變)한다. 토층(土層)의 수입(輸入)도 증가(增加)되어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화원(畫員)을 분원(分院)에 보내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분주원보등(分廚院報騰)에 「畫靑匠 십사명(畫靑匠 十四名)」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많은 화원(畫員)이 현지(現地)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전념(專念)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中期)의 것은 그림으로서의 기법(技法)이 우수(優秀)하고 후기(後期)에 와서는 도안(圖案)으로서의 재미있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 공예품(工藝品)에는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으나 화원(畫員)이 아닌 도공(陶工)이 그림 그림으로서 멋이 풍기는 일품(逸品)이 많이 보인다. 조선을 와서는 청화(靑華)도 남작(濫作)되어 희소가치(稀少價値)는 없어지고 관요(官窯)의 제품(製品)도 민간인(民間人)이 사용(使用)하게 되었다. 조선을 통(通)하여 청화(靑華)로서의 문양(文樣)은 그 종류(種類)가 많다. 그 중(中)에서도 가장 많이 그려진 그림은 십장생(十長生)으로 십장생(十長生)은 일(日), 월(月), 산(山), 석(石), 수(水), 불로초(不老草), 송(松), 죽(竹), 학(鶴), 녹(鹿)을 일음이며 이는 도자기(陶磁器) 이외(以外)에 목공(木工), 죽공(竹工), 자수(刺繡) 등(等)에도 많이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도교(道敎)의 장수희구사상(長壽希求思想)에 유래(由來)한 것이라고 보겠다. 십장생(十長生)은 하나의 전체(全體)를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部分)만을 그릴 때가 많다. 청화(靑華)는 이조후기(李朝後期)에 많이 생산(生産)된 것으로 십장생(十長生)도 후기(後期)의 청화(靑華)에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그려지고 있는 학(鶴), 녹(鹿), 송(松) 등(等)은 옛날부터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民族)의 기호(嗜好)라 할 수 있다. 또 초기(初期)의 작품(作品)을 보면 당초(唐草), 당화(唐花), 송매(松梅), 풍경(風景), 인물(人物) 등(等)이 그려지고 있으나 비교적 인물화(人物畫)가 적다. 중기(中期)에 와서는 우리 민족(民族)의 특징(特徵)을 살려 매죽(梅竹), 포도(葡萄), 야초(野草) 등(等)을 그리고 있으며 용호(龍壺)는 호중(壺中)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生産)되고 있다. 초기(初期)부터 만들기 시작(始作)하여 중기이후(中期以後)의 작품(作品)이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는 용준(龍樽)의 원류(原流)는 중국(中國)으로서 용(龍)은 가장 고귀(高貴)한 동물(動物)로 숭앙(崇仰)되어 제왕(帝王)을 용(龍)에 비유(譬喩)했기 때문에 용안(容顏), 용가(龍駕)란 말들이 나오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제왕(帝王)이 사용(使用)하는 기(器)에는 용(龍)을 그렸고 제사(祭祀), 연례(宴禮) 등의 기형(器形)에도 용(龍)을 그려서 사용(使用)하였다. 이 용(龍)은 왕실(王室)이 오조(五爪)로 종족(宗族)과 사대부(士大夫)는 사조(四爪) 또는 삼조(三爪)가 허용(許容)되었다. 산수(山水)도 많이 그려져 있는데 주로 각병(各瓶) 등에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중기(中期)에 가장 많고 후기(後期)에 와서는 호(壺), 연적(硯滴) 등(等)에 많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중기(中期)의 것은 중국적(中國的) 산수(山水)의 풍(風)이고 후기(後期)의 그것은 분원(分院)에서 북한산(北漢山)을 바라 본 풍경(風景)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봉황(鳳凰)도 많이 그려졌는데 이것은 제사(祭祀) 연례용(宴禮用)으로 봐야 할 것이다. 조류(鳥類)로서는 앵(鶯)과 작(鵲) 등이 많고 이름 모를 새들도 많이 볼 수가 있다. 목단(牧丹)을 중국(中國)에서 부귀(富貴)의 꽃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그리고 있다. 말기(末期)에 편복(蝙蝠)을 많이 그렸는데 이 편복(蝙蝠)은 도안(圖案)으로서 많이 전용(戰用)되어 그려지고 있다.

그 외(外)에도 성좌(星座), 자류(柘榴), 리(鯉), 보물모양(寶物模樣) 등 그림과 「부귀다남(富貴多男)」 「수복강녕(壽福康寧)」 「제(祭)」 등의 문자(文字)도 쓰여져 있는데 「제(祭)」는 제기(祭器)의 표시로 달리 유용(流用)됨을 금(禁)하기 위함이라 보겠고 앞에서

도 인물화(人物畵)가 적다고 하였는데 인물(人物)을 그리지 않는 것은 이것을 실내(室內)에 두면 흉(凶)하다는 무녀적(巫女的) 신앙(信仰)에서 유래(由來)된 것이라 본다.

6) 흑 유(黑釉)

흑유(黑釉)의 태토(胎土)는 백자태토(白磁胎土)이며 유약내(釉藥內)에 철분(鐵粉)이 많이 함유(含有)되어 번조(燻造) 후(後) 표면(表面)의 색(色)이 흑갈색(黑褐色) 또는 암갈색(暗褐色)으로 된다.³⁴⁾ 이는 고려시대(高麗時代) 말기(末期)부터 조선전기(全期)를 통(通)하여 급혀지고 있다.

이 흑유(黑釉)가 많이 번조(燻造)된 곳은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 밀양군 단양면 구천리(慶尙南道 密陽郡 丹陽面 九川里)
-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면 울동(慶尙南道 密陽郡 三浪津面 栗洞)
- 경상북도 의성군 왕산면 토암리(慶尙北道 義城郡 王山面 土岩里)
- 경기도 용인군 내서면 남곡리(京畿道 龍仁郡 內西面 南谷里)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구신리(京畿道 楊平郡 砥堤面 舊新里)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신복리(京畿道 楊平郡 砥堤面 新福里)³⁵⁾

이 이외(以外)에 계룡산(鷄龍山)과 제주도(濟州道) 등지(等地)에서도 급혀졌다고 본다. 제주도(濟州道)에서는 편호(扁壺)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주도(濟州道)는 서귀포(西歸浦)를 제외(除外)하고는 물이 귀한 곳이므로 목인(牧人)들이 휴대용수통(携帶用水筒)으로 사용(使用)한 때문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호백민(好白民)으로서 흑유물(黑釉物)은 그다지 좋은 호감(好感)을 받는 기물(器物)이 못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흑유(黑釉)는 제작률(製作率)이 좋고 태토(胎土)도 조악(粗惡)한 재료(材料)를 사용(使用)해도 되기 때문에 백토(白土)를 다 파내고 난 후에도 제작(製作)이 가능(可能)했다고 본다. 철유(鐵釉)로 기물전체(器物全體)를 담구어 굽기 때문에 유(釉)가 잘 묻으며 기형(器形)은 편호(扁壺), 호(壺), 주병(酒瓶), 배(盃), 연적(硯滴) 등(等)이 많이 제조(製造)되었다.

7) 제기(祭器) 연적(硯滴)

조선후기(後期)의 공예품(工藝品)은 서원문화(書院文化)에 그 영향(影響)을 많이 받고 있다. 제기(祭器) 문방구등(文房具等)이 바로 그것이다. 제사(祭祀)는 각가정(各家庭)에서 반드시 치뤄야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기(祭器)는 가정(家庭)의 필수품(必需品)을 계관(係管)되어야 했다. 서원(書院)의 유생(儒生)들은 문방구(文房具)의 요구(要求)를 하게 되고 문방구(文房具)로서는 연적등(硯滴等)이 만들어졌다. 연적(硯滴)은 수량(數量)도 많았거니와 또한 기형채색(器形彩色)도 갖가지 볼 수 있다.

3. 조선도기(陶器)의 특징(特徵)

고대생활(古代生活)의 중요부분(重要部分)으로서의 농경(農耕), 어업(漁業), 제도(製陶)의 세가지를 이야기한다. 인류(人類)가 불을 사용(使用)하게 됨으로서 동철기(銅鐵器)의 제작이전(製作以前)에 있어서는 석제(石製)가 아니면 토기(土器)를 필요(必要)로 하였다. 토기(土器)는 비교적(比較的) 간단히 제작(製作)할 수도 있고, 사용처(使用處)도 넓다. 그래서 고대인(古代人)들은 생활수단(生活手段)으로서 토기(土器)를 많이 생산(生

34) 鄭良漢 韓國美術全集 李朝磁器 p10 同和出判公社

35) 浜口良光 朝鮮の工藝 p76 美術出版社 1960

産)하였다. 토기(土器)는 용기(容器)로서 편리(便利)한 점(點)은 많으나 파손(破損)이 많은 것이 결점(缺點)으로 여기에 도자기(陶磁器)의 제작(製作)이 이루어졌다. 토기(土器)를 대신(代身)하여 사용(使用)된 것으로는 금속기(金屬器)도 있지만 비화용기(非火容器)로서 목기(木器)도 있다. 그러나 목기(木器)는 제작(製作)하는데 필요(必要)한 적재(適材)로 나무가 있어야 한다. 일본(日本)은 나무와 죽(竹)이 유명(有名)하여 일찍부터 목기(木器)와 죽기(竹器)가 발달(發達)하였는데 반(反)하여 우리나라는 재료(材料)도 문제(問題)이거니와 공기(空氣)가 너무 맑고 건조(乾燥)하여 목기(木器)는 이내 부서지기 쉬우므로 극히 일부(一部)만 생산(生産)되고 다량생산(多量生産)은 되지 않았으며, 반면(反面)에 재료(材料)가 풍부(豊富)한 도자기(陶磁器)의 생산(生産)을 하게 되어 대부분(大部分) 도자기(陶磁器)가 생활(生活)에 사용(使用)되었다.

우리나라는 도토(陶土)의 나라라 할만큼 태토(胎土)가 많으며 연료(燃料)도 옛날에는 풍부(豊富)하였다. 그래서 대량(大量)의 수요(需要)를 용이(容易)하게 충족(充足)시킬 수가 있었다. 아무튼 조선시대에는 많은 공예품(工藝品)이 있었으나 그 중(中)에서도 최우수작품(最優秀作品)은 도자기(陶磁器)라 아니할 수 없다.

자기(磁器)의 제작(製作)은 고려자기(高麗磁器)는 고화도(高火度)로 굽지만 기술(技術)이 어려운 탓인지 그렇게 많이 생산(生産)되지 않았고, 요지(窯址)도 수개소(數個所) 밖에 발견(發見)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려(高麗)에서는 귀족용공예품(貴族用工藝品)으로 일반서민(一般庶民)의 공예품(工藝品)은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말(麗末) 선초(鮮初)에 이르러 고려자기(高麗磁器)보다 저화도(低火度)에서 구울 수 있는 회토(灰土)를 사용(使用)한 분청(粉靑)이 등장(登場)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분청(粉靑)은 급속(急速)히 전파(傳播)되어 100여개소(餘個所)가 넘는 요지(窯址)가 나타난다. 앞에서 논(論)한 바 있지만 조선건국후(建國後) 40여년(年頃)에 이르러서는 전국(全國)에 도자기소(陶磁器所)가 321개소(個所)에 이르고 있는 것은 도자기제작기술(陶磁器製作技術)이 얼마나 빠른 시일내(時日內)에 발전전파(發展傳播)되었는가를 입증(立證)한다. 또한 이렇게 전파(傳播)가 빨랐다는 것은 도자기(陶磁器)의 수요(需要)가 많았다는 것을 말한다. 도자기(陶磁器)의 용도(用途)는 궁정(宮廷)의 연례용(宴禮用) 관인(官人) 서민(庶民)의 식사용구(食事用具) 등(等)으로 사용(使用)되는데 식기(食器)는 어느 나라 가정(家庭)없이 많은 수(數)를 요(要)하나 우리나라만큼 많은 가지수를 갖는 나라는 드물다. 그리고 제기(祭器)의 수요(需要)도 많았다. 제기(祭器)는 조선에 있어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依)해서 가장 중요시(重要視)되었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권11가정편(卷11家庭篇)을 보면 가중(家中)에 수재(水災), 화재(火災), 도적(盜賊)이 들면 제일 먼저 사당(祠堂)의 신주(神主)(위패(位牌))를 모셔 계전(係全)해야 하고 들제는 제기(祭器) 그 다음이 가재(家財)를 챙겨야 한다고 하였다. 제기(祭器)는 모두 48종(種)으로서 수(數)가 많으며 중요시(重要視)되었기 때문에 제(祭)를 모시는 집에서는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만 한다. 그뿐 아니라 외주방(外廚房)에는 잡곡(雜穀)넣는 단지, 종자(種子) 단지, 꿀단지 등(等) 수없는 도자기(陶磁器)가 진열(陳列)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만큼 도자기(陶磁器)를 많이 사용(使用)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우리와 이웃한 일본(日本)은 목기(木器) 및 죽기(竹器)가 유명(有名)하여 그것에 단무우지 같은 것을 만들어 먹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술 젓갈 등 발효식품(醱酵食品)을 많이 먹는 이유(理由)가 도자기(陶磁器)의 발달(發達)에서 유래(由來)한 것이라고 하겠다.

조선도자(陶磁)의 특징(特徵)에서 첫째로는 「견실성(堅實性)」을 들 수 있다. 선(線)은 예리(銳利)하고 형(形)은 강(強)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조선때에는 견실(堅實)한 도자 작품(陶磁作品)이 만들어졌을까? 역사적(歷史的)으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외국침략(外國侵略)을 많이 받았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사람은 강(強)한 의지(意志)를 갖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만주(滿洲)의 야인(野人)들은 중국화(中國化)되어도 중국(中國)과 국경(國境)을 접(接)한 우리민족은 주체적(主體的) 사고(思考)속에서 내것을 지켜왔으며 이와 같은 인내력(忍耐力)은 민족주체성(民族主體性)을 낳게 했고 이로 인(因)하여 튼튼하고 충실(充實)한 작품(作品)을 만들어 놓기에 이르렀다. 우리 문화(文化)를 중국(中國)의 모방문화(模倣文化)라고 하는 이가 있지만 도자기(陶磁器)에 나타난 형상(形狀)은 중국(中國)의 영향(影響)을 받아 제조(製造)되었다 하더라도 중국풍(中國風)은 볼 수 없고 우리의 독특(獨特)한 작품(作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한국도자기(韓國陶磁器)와 중국(中國)의 그것과는 구별(區別)하기가 용이(容易)하다.

둘째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시대(時代)의 발전(發展)에 따라 기형(器形), 장식(裝飾), 색채(色彩)가 복잡하게 발달(發達)하였는데 반(反)하여 우리나라의 공예품(工藝品)은 시대(時代)가 발달(發達)함에 따라 점차적(漸次的)으로 간소화(簡素化)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이조도공(李朝陶工)들의 태만(怠慢)과 능력부족(能力不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경제력(經濟力)의 감퇴(減退)에 기인(其因)한 재료(材料)의 구득난(求得難)에서 일어난 현상(現象)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조도공(李朝陶工)들은 간소화(簡素化)에 의하여 그 작품(作品)의 가치(價值)를 하락(下落)시킨 것은 결(決)코 아니었다. 그들은 간소화(簡素化)에서 오는 단순화(單純化)를 강(強)한 선(線)으로 보충(補充)하여 고담(枯淡)의 경지(境地)에까지 이끌어 올렸고 또한 화(畵)에 있어서도 그 여백(餘白)을 살려 놓는 기법(技法)과 창의성(創意性)으로 보다높은 차원(次元)의 세계(世界)를 이룩하였다.

셋째로는 우리 민족(民族)의 성품(性品)인 호백성(好白性)의 표현(表現)이다. 호백(好白)은 작품(作品)에도 그 특징(特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백(百)은 색(色)이 아니고 빛이라고 한다. 백(百)은 그 어떠한 색(色)보다도 강(強)하게 작용(作用)하고 있는 백자(白磁)는 청화(靑華), 진사(辰砂), 철사(鐵砂) 등의 도자기(陶磁器)보다 열등(劣等)한 것이 아니다. 많은 종류(種類)의 유색도자중(有色陶磁中)에 백자(白磁)가 들어 있으면 그 중(中)에서도 가장 잘 눈에 띈다.

넷째 이조자기(李朝磁器)에 그려진 청화(靑華)의 특성(特性)이다. 앞서서도 지적(指摘)한 바 있지만 당시(當時) 회청(回靑)은 중국(中國)과의 무역품중(貿易品中)에서도 구(求)하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화원(畵員)이 도요(陶窯)에 가서 많은 기류(器類)에 회청(回靑)으로 모두 그리고 싶지만 희귀품(稀貴品)이라 전체면(全體面)에 다 그릴 수 없어 그 일부분(一部分)에만 사청(四靑)의 색(色)의 묘(妙)를 살려 그려 놓았다.

예(例)컨대 기(器)의 상부(上部)에만 난(蘭) 한쪽을 연하게 그리고 허리 부분(部分)에 일선(一線)을 횡(橫)으로 획(劃)하여 그려놓은 점(點)이라든가 창문(窓門)을 도자기(陶磁器) 일부(一部)에 그려놓고 창문밖에 간단한 풍경(風景)을 그리므로써 여백(餘白)은 방으로 생각게 하여 창(窓)밖의 풍경(風景)을 바라보는 듯 하는 느낌을 주는 착상(着想)같은 것이 그것이다. 화원(畵員)이 아닌 도공(陶工)이 도안식(圖案式)으로 그려놓은 작품(作品)은 정치(精緻)한 맛, 정돈(整頓)된 맛에 있어서는 부족(不足)하나 그대신 질박(質朴)한 맛과 순진(純眞)한 맛에 있어 뛰어난 작품(作品)이라 할 수 있다. (圖 6)

중국(中國)과 비교(比較)할 때 중국(中國)은 사청(四靑)의 원료(原料)가 풍부(豐富)하여 이를 마음껏 사용(使用)하여 기면(器面) 전체(全體)에 진한 색(色)의 세화(細畫)를 그렸지만 우리나라는 간단한 힘찬 선으로 그림의 주제(主題)를 잘 표현(表現)하였기에 오늘날에 있어 그 강인(強靱)하면서도 소담(素淡)한 취향(趣向)이 오히려 더욱 높이 평가(評價) 받고 있다.

다섯째 공예품(工藝品)은 수공예(手工藝)와 기계공예(機械工藝)로 나눌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자기공예품(陶磁器工藝品)은 전적(全的)인 수공예(手工藝)의 것으로 도공(陶工)들이 사용(使用)하는 도구(道具)로는 물레(녹로(轆轤)) 하나 뿐이었다. 물레는 공자형(工字型)의 것으로 이것도 도공자신(陶工自身)들이 만든 수제품(手製品)이었으며 도공(陶工)들은 이를 회전(回轉)시켜 도기(陶器)를 만든다.

공자형(工字型) 물레위에 태토(胎土)를 얹고 발끝에서 손끝에 이르기까지 심신(心身)이 일체(一體)가 되어 기형(器形)을 뽑아 올려 만드는 것이다.

자기(磁器)는 화도(火度)의 조절(調節)에 성공(成功) 여부(與否)를 좌우(左右)한다. 불의 온도조절기(溫度調節器)가 없는 시대(時代)라 불보기 구멍을 통하여 도둑들 위에 얹혀있는 불보기만을 보고 화도(火度)를 조절(調節)한다. 이때 도공(陶工)들의 화도(火度)의 조절(調節)은 수년간(數年間) 아니면 평생(平生)을 통하여 경험(經驗)으로 습득(習得)한 오직 육감(六感)에 의(依)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이다.

결 언 (結言)

지금까지 조선시대(時代)의 도자기(陶磁器)의 발달과정(發達過程)을 전·중·후(前·中·後)의 3기(期)로 나누어 조선도자(陶磁)의 특징(特徵)을 여러 측면(側面)에서 살펴 보았다.

조선자기(磁器)는 고려청자(高麗靑瓷)처럼 섬세(纖細)한 곡선(曲線)과 기형(器形)의 사치적(奢侈的)인 면(面)이 사라지고 색채(色彩)에 있어서도 자유자연(自由自然)스러운 야취(野趣)가 풍기는 청화(靑華), 철사(鐵砂), 진사(辰砂)외는 화려(華麗)한 색(色)을 쓰지 않아 같은 시대(時代)의 중국(中國), 일본(日本)의 도자기(陶磁器)와는 쉽게 구별(區別)할 수 있다. 조선시대(時代)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기본적(基本的) 기호자기(嗜好磁器)는 백자(白磁)라고 하겠다. 앞에서 우리 민족(民族)을 호백민(好白民)이라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방(房)도 흰 창호지(窓戶紙)로 도배(塗褙)하였고 의복(衣服)도 백색(白色)이며 식기(食器)도 백자(白磁)이니 의식주(衣食住)가 모두 백색(白色)이라 그러기에 청정(淸淨)을 좋아하는 호백민족(好白民族)이라 일컫는다. 백자(白磁)는 고려이래(高麗以來) 조선초기(初期)부터 질적향상(質的向上)을 가져와 세종(世宗) 때 궁중어기(宮中御器)로 전용(專用)할 만큼 되었고 세조(世祖)때에는 명(明)에서 회회청(回回靑)을 수입(輸入)해서 청화백자(靑華白磁)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초기요업(初期窯業)에서 밝힌 바 있지만 채료(彩料)는 구(求)하기 힘들었기에 청화(靑華)는 사치품(奢侈品)이 되고 민간(民間)의 사용(使用)마저 금지(禁止)하게 되었었다. 공예(工藝)는 나라마다 제각기 그 성격(性格)을 달리 하고 있다. 그것은 그 나라마다 개성(個性)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래(古來)로 중국(中國)으로부터 종종(種種)의 공예기술(工藝技術)이 전(傳)해져 왔지만 조선때를 보면 우리나라 공장(工匠)들은 예리(銳利)한 조형감각(造形感覺)으로 대륙풍(大陸風)을 벗어나 우리나라 특성(特性)에 맞도록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조선사회(社會)가 정치적(政治的)으로는 나약(懦弱)하였으나 서민생활(庶民生活)의 굳센 의지(意志)와 주체적(主體的) 사고(思考)는 모방(模倣)을 벗어나 독특(獨特)한 한국적(韓國的) 작품(作品)을 만들어 놓았다.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에 진열(陳列)해 놓은 이조도자(李朝陶磁)의 시대별(時代別) 특징(特徵)은 굽의 높이와 구연부(口緣部)의 차이점(差異點)에서 식별(識別)할 수 있다. 15세기경(世紀頃)의 분청사기국화문마상배(粉靑沙器菊花文馬上杯)(국립중앙박물관소장(國立中央博物館所藏) 분청사기국화문마상배(粉靑沙器菊花文馬上杯))같은 것은 굽의 대표적(代表的) 작품(作品)으로 총고(總高) 10cm인데 굽의 높이가 5cm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7세기(世紀) 철회시대(鐵繪時代)의 도자(陶磁)는 몸통 어깨 부분이 옆으로 벌어진데 대하여 18, 19세기(世紀)로 내려올수록 몸통이 가늘고 구연부(口緣部)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후기(後期)의 청화(靑華)를 보면 굽이 거의 없고, 약간의 각(角)을 주고 선(線)으로서 굽을 표시한 정도(程度)이며 구연부(口緣部)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말기(末期)의 서민(庶民)들이 사용(使用)했던 자기(磁器), 대접같은 것은 오뚝이 모양 아무렇게나 굴러도 바로 설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있어 마치 국가(國家)의 성애(盛衰)와 도자기(陶磁器)의 형태(形態)가 관련(關聯)이 있는 양(樣) 인식(認識)되기도 한다. 아무튼 이조(李朝)는 공예국(工藝國)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時代)에 만들어진 도기(陶器)를 비롯한 목기(木器), 금속기(金屬器), 석기(石器), 칠기(漆器), 우각기(牛角器), 자수(刺繡) 우모(羽毛) 잡기등(雜器等) 모든 일상용기(日常容器)는 공예품(工藝品)이 아닌 것이 거의 없다. 이조선시대(時代)의 공예(工藝)은 일반적(一般的)으로 말하는 미술품(美術品)과는 다르다. 조선의 공예품(工藝品)은 장식용품(裝飾用品)이 아니고 사용(使用)하기 위한 실용가치(實用價值)와 미(美)를 조화(調和)시켜 만들어낸 생활용품(生活用品)이다.

줄고(拙稿)를 작성(作成)함에 있어 그동안 많은 도요지(陶窯址)를 답사(踏查)하여 촬영(撮影)한 사진(寫眞)을 많이 게재(掲載)하여 참고(參考)로 제공(提供)하였으면 하였으나 한정(限定)된 지면관계(紙面關係)로 극히 일부(一部)만 게재(掲載)하게 되었다. 도자기(陶磁器) 용어(用語)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統一)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不得已) 한국(韓國) 미술사(美術史) 전집(全集)에 사용(使用)된 용어(用語)를 사용(使用)하였다. 끝으로 도요지(陶窯址) 답사(踏查)때 지표조사(地表調査)에 협조(協助)하여 주신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조유전(趙由典) 학술관(學術官)님께 감사(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參考圖書

- 高裕燮 韓國美術文化史論叢. 서울신문사 출판국 1966
- 高裕燮 高麗靑磁. 乙酉文化社 1954
- 小山富士夫 世界陶磁全集 朝鮮上代 高麗編 河出書房 1955
- 中尾萬三 朝鮮高麗陶磁器考 學藝書院 1935
-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清閑社 京都 1944
- 山田萬次郎 高麗の官窯 日本美術工藝社 DDL1949
- 小山富士夫 世界陶磁全集 李朝篇 河出書房 東京 1956
- 內山省三 朝鮮陶磁 寶雲舍 東京 1933
- 鄭良謨 韓國美術全集 10 李朝陶磁 同化出版社 1973

長谷郎樂爾 陶磁全集 唐宋青磁 1971
 藤岡了一 陶磁全集 11卷 元明初の染付 1971
 藤岡了一 陶磁全集 12卷 唐宋の辰砂 1971
 小山富士夫 陶磁講座 8卷 朝鮮 高麗
 진흥섭 교양국사총서 3 청자와 백자 1974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淺川伯教.陶器全集 17. 李朝, 平凡社 東京 1971.
 佐藤雅彦 中野徹 陶磁講座 6 元明, 1971
 三上次男, 山邊知行 岡田讓 東洋美術 6卷 工藝朝日新聞社 1967.
 小山富士夫 長谷部樂爾 藤岡了一三上次男 滿岡忠成 東洋美術 制4卷 陶磁 1967.
 崔淳雨 韓國文化史大系 韓國工藝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2.
 李丙□ 韓國史 中世篇 乙酉文化社 1973.
 李相伯 韓國史近世前期 乙酉文化社 1973.
 李相伯 韓國史近世前期 乙酉文化社 1973.
 李瑄根 韓國史 最近世篇 乙酉文化社 1973.
 李載□ 柳永烈 韓國史大系 朝鮮末期 三珍社 1973
 韓榮國 韓國史大系 朝鮮末期 三珍社 1973
 元裕漢 尹炳爽 韓國史大系 朝鮮末期 三珍社 1973
 黃壽永 尹武炳 崔淳雨 韓炳三 韓國國立中央博物館名品圖錄 三和出版社 1972.8
 浜口良光 朝鮮の工藝 美術出版 東京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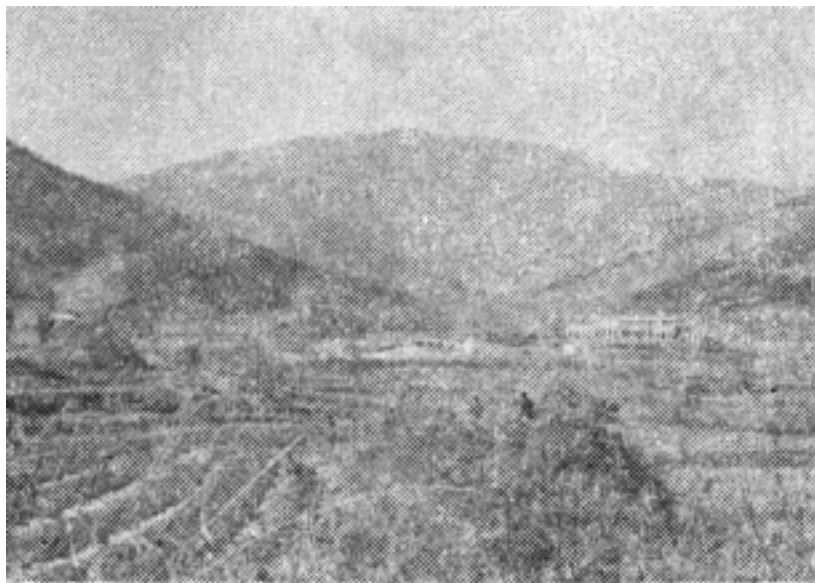


圖 1) 京畿道 廣州郡 都尺面 宮平里 窯址

圖 1)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 요지(京畿道 廣州郡 都尺面 宮平里 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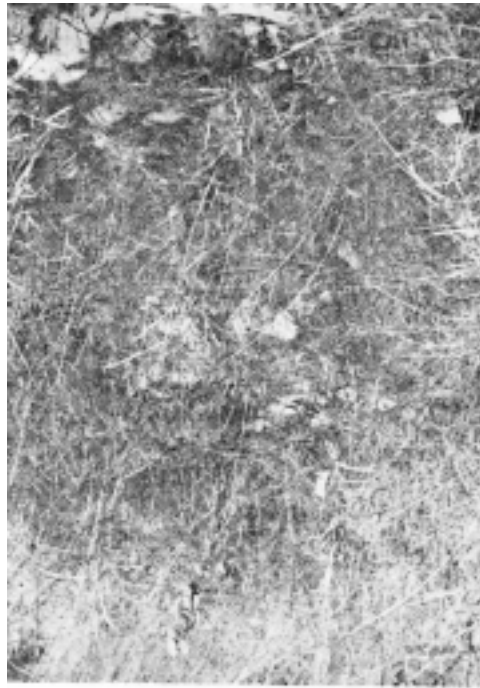


圖 2) 宮平里 窯址의 陶磁片

圖 2) 궁평리 요지의 도자편(宮平里 窯址의 陶磁片)



圖 3) 京畿道 黃州郡 南終面 分院里 分院校
언덕에 출어진 陶磁破片



圖 4) 分院校 校庭에 세워진 燔造官 善政碑

圖 4) 본원교 교정에 세워진 번조관 선정비(分院校 校庭에 세워진 燔造官 善政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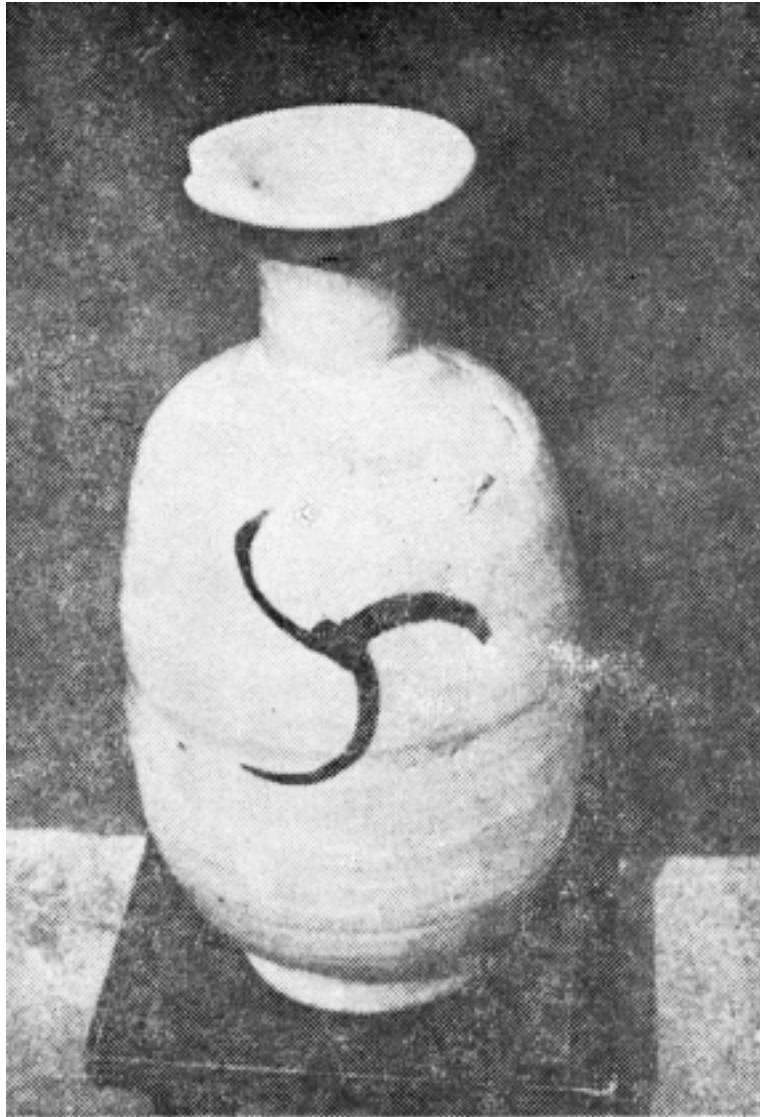


圖 5) 鐵砂瓶(馬山教育大學 鄉土館 所藏)

圖 5) 철사병(마산교육대학 향토관 소장) (鐵砂瓶(馬山教育大學 鄉土館 所藏))



圖 6) 後期 青華 白磁瓶(馬山教育大學所藏)

圖 6) 후기 청화 백자병(마산교육대학소장) (後期 青華 白磁瓶(馬山教育大學所藏))